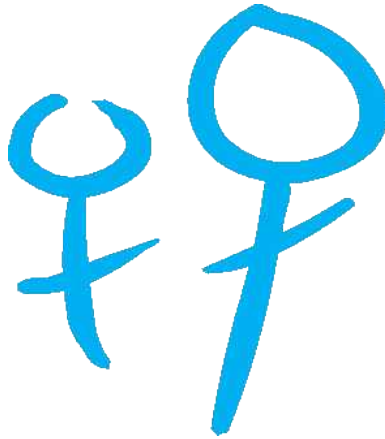


함께하는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2022 정기회원총회



- ◆ 때: 2022년 1월 26일(수) 오후 7:00
- ◆ 곳: 함께하는거창 사무실



www.gcngo.org

참여와 자치의 지역공동체

함께하는거창

50128

경남 거창군 거창읍 공수들 6길 8-8, 1F

전화 055-942-1117

팩스 055-943-1170

전자우편 cham1117@hanmail.net

누리집 <http://gcngo.org>

☒ 코로나 사태로 집회가 어려우니 각 안전에 대해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총 회 순 서

1. 개회선언
2. 공동대표 인사말
3. 감사보고
4. 2021년 결산보고
5. 2021년 사업보고
6. 2022년 사업계획(안) 의결
7. 2022년 예산(안) 의결
8. 임원개선의 건
9. 기타안건 토의
10. 폐회선언

※ 올해 총회는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코로나 19로 2022년 정기회원총회의 집회가 불가능하여 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에 위임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회원 여러분께서 4~9항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문자 : 010-9661-8786이나 Email:cham1117@hanmail.net으로 1월 25일까지 보내주시면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

공동대표 인사말

2022년 총회를 맞으면서

어려움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회원님들께서는 무고하셨는지요? 회원님들의 정성 덕분에 지난 일 년도 **함께하는 거창**이 지역에서 작으나마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다시 총회를 맞으면서, 이번에도 감염병 때문에 모이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총회를 운영위원회에 위임하였습니다. 혹 사정이 나아져서 모일 수 있으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난망입니다. 그러니만큼 총회자료집에 비교적 자세한 내용을 실었으니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고, 또 올해는 임원 개선 총회로서 공동대표, 사무국장, 감사를 선출하여야 하니, 이 또한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회를 맞아 특별히 사무국장 이종성 회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재정 때문에 이미 3년 전부터 상근자를 둘 수 없어서 비상근으로 사무실을 운영하였습니다만, 사무국장께서 적은 활동비로 상근을 해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함께하는 거창**이 나름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보고에서는 새로 시도된 ‘군의원 평가’를 살펴주십시오. 운영위원회에서는 군정에서 군의원의 역할은 지역자치의 발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군의원의 활동을 제고시킬 방안을 꽤 오랫동안 고심한 끝에 처음 시도된 것입니다. 군의회 회의록, 기타 자료를 인공지능으로 분석, 통계를 낸 결과 군의원 개개인의 성과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작업이 군의회가 군정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데이터를 토대로 회원들이 주관적인 평가를 수행하여 평가서를 완성할 계획이었으나, 군의회의 회기가 12월에 끝나서 1월에 작업을 완성한 사정이 있고, 또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므로 차분하게 진행하자는 생각에서 이번에는 객관적인 자료만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올해에는 객관적 평가와 주관적 평가를 함께 실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올해의 주요사업 중 하나입니다.

지난해에도 약 900억 원의 재정을 들여 소위 ‘거창복합문화센터’ 건립하는 문제가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올해도 계속되리라 생각되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한편, **함께하는 거창**은 비판과 견제만큼 대안 제시에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창지역공동체의 자치 역량을 높일 것인가? - 이런 고민 속에서 우리는 이미 함께하는 거창 출판사, 함께하는 거창 TV를 만들었고, 지난해 몇 가지 시도를 거쳐 동영상도 제작했으니, 기반은 갖추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이 작업을 좀 더 활성화할까 합니다. 정책적인 대안 제시는 물론 지역인과 지역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여러 방면에서 서책과 동영상으로 내용을 축적해 나가고자 합니다. 회원님과 주변의 인물 중 기록 또는 전파하면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리라고 생각되는 콘텐츠가 있으면,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여러모로 중요한 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있으니, 그 결과가 지역자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감염병 또한 가볍게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혹자는 올해가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하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특히 회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1.7.

상임대표 신용균

감 사 보 고

새해에는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라며 시 한편으로 감사보고서를 대신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단 하나만을
- 박노해

새해에는 단 하나만을 바라기를

단 하나의 새로운 만남을
단 하나의 새로운 독서를
단 하나의 새로운 물건을
단 하나의 새로운 장소를
단 하나의 새로운 감동을
마주하고 경험하고 되어가기를

그 인연으로 하여 나에게는

단 하나의 결정적 단념을
단 하나의 결정적 극복을
단 하나의 결정적 변경을
결단하고 성찰하고 나아가기를

새로운 인연과 새로운 경이가
내가 해오던 일들을 새롭게 빚내고
하루하루의 반복에 의미를 더하고
분투해온 것들을 생생하게 하기를

그리하여 새해에는
또 다른 나를 낳아가게 하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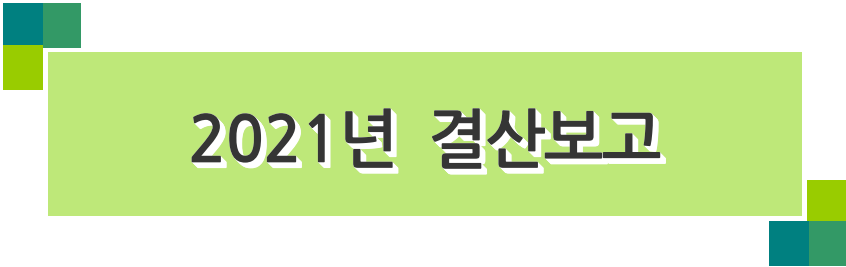
2022년 1월 10일

감 사 조영준

2021 회의록

2021 정기 회원총회 회의록

1. 개회선언
2. 공동대표 인사말
3. 감사보고
4. 2020년 결산보고
5. 2020년 사업보고
6. 사업계획
7. 예산심의
8. 기타토의



2021년 결산보고

● 회계연도:2021년 1월 1일~12월 31일(단위:원)

1.자 본 현 황

자 산		부채와 자본	
보통예금	8,291,030	차입금(-통장)	0
적금(퇴직적립금)	1,800,000	퇴직적립금	1,800,000
임차보증금	20,000,000	자 본 금	28,291,030
합 계	30,091,030	합 계	30,091,030

2.2021년 회계별 수입·지출 현황

수 입		지 출		잔 액	
일반회계 (사무국)	21,207,248	일반회계 (사무국)	24,357,694	일반회계 (사무국)	10,091,030
				작권모	3,445,089
합 계	21,207,248	합 계	24,357,694	합 계	13,536,119

4.일반회계(사무국) - 전년도 대비 수입

수 입 (2020년도)			수 입 (2021년도)		
구 분	계정과목	금 액	구 분	계정과목	금 액
회비수입	전년도 이월금	416,472	회비수입	전년도 이월금	12,041,476
	회비수입	22,340,000		회비수입	19,950,000
	후원금(사무국)	0		후원금(사무국)	0
	후원금(연구소)	0		후원금(연구소)	0
	후원금(작권모)	0		후원금(작권모)	0
기타수입	이자수익	4,583	기타수입	이자수익	8,148
	차입금	0		차입금	0
	잡수입	1,200,000		잡수입	1,249,100
	임차보증금	0		부대비용	0
수입합계		23,961,055	수입합계		33,248,724

5.일반회계(사무국) - 전년도 대비 지출

지 출 (2020년도)			지 출 (2021년도)		
구 분	계정과목	금 액	구 분	계정과목	금 액
인 건 비	활동비	5,000,000	인 건 비	활동비	14,400,000
	상여금	0		상여금	400,000
	퇴직적립금	600,000		퇴직적립금	1,200,000
	복리후생비	99,420		복리후생비	0
사무유지비	건물관리비	3,600,000	사무유지비	건물관리비	3,600,000
	기기구입비	847,170		기기구입비	949,000
	사무용품비	74,780		사무용품비	466,700
	세금과 공과금	5,360		세금과 공과금	9,960
	소모품비			소모품비	
	수선비			수선비	
	수도광열비	783,340		수도광열비	741,520
	통신비	325,130		통신비	327,044
사 업 비	도서인쇄비		사 업 비	도서인쇄비	1,018,500
	발 송 비	36,460		발 송 비	227,680
	분 담 금	100,000		분 담 금	150,000
	사 업 비	900,000		사 업 비	831,400
	회원활동비 (경조금)			회원활동비 (경조금)	
	회 의 비	139,950		회 의 비	35,890
	출장연수비			출장연수비	
사업외비용	잡 비		사업외비용	잡 비	
	예비비			예비비	
	현 금	0		현 금	
지출합계		12,511,610	지출합계		24,357,694

6. 계정과목 설명

구분	계정과목	내 용
수 입	회비수입	회원 회비 수입
	후원금(사)	사무국 정기, 부정기 후원금
	후원금(연)	교육연구소 후원금
	사업수익	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
	이자수익	예금통장 이자 수익
	차 입 금	-통장에서 빌려온 돈(부채)
	잡 수 익	수입항목이 없는 수입
	전년도 이월금	지난해 장부에서 넘어 온 현금
지 출	급 여	상근 실무자 급여, 활동비
	상 여 금	상근 실무자 상여금
	퇴직적립금	상근 실무자 퇴직 적립금
	복리후생비	복리후생을 위한 비용
	건물관리비	사무실 월세
	기기구입비	각종 기자재 구입비
	사무용품비	사무용품 구입비
	세금과 공과금	정부, 자치단체에 납부한 세금
	소모품비	쓰레기봉투, 프린터 토너 등 소모품 구입비
	수 선 비	자산 유지, 보수 비용
	수도광열비	상하수도세, 전기세, 냉난방 비용(기름 등)
	통 신 비	전화, 인터넷, 문자메세지 발송 비용
	도서인쇄비	소식지 등 인쇄비, 복사비, 도서 구입비
	발 송 비	소식지 등 각종 우편물 발송비, 택배비
	분 담 금	다른 단체와 연대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사 업 비	각종 사업비용
	회원활동비	회원 송년회 등 회원활동을 위한 비용
	회 의 비	회원총회, 각종 회의 개최 경비
	출장연수비	교육, 출장에 필요한 비용
	잡 비	기타 계정과목이 명확하지 않은 지출
	차입금 상환	-통장 상환 금액
	예 비 비	예비비
	현 금	현 금

● 자산변동 현황(2021년 12월 31일 현재)

자 산				부채와 자본			
구 분	2020년	2021년	증감	구 분	2020년	2021년	증감
보통예금	11,441,476 (35.7%)	8,291,030	-3,150,446	차입금	0	0	0
적금(퇴직적립금)	600,000 (1.9%)	1,800,000	1,200,000	퇴직적립금	600,000 (1.9%)	1,800,000	1,200,000
임대차보증금	20,000,000 (62.4%)	20,000,000	0	자 본 금	31,441,476 (98.1%)	28,291,030	-3,150,446
합 계	32,041,476 (100%)	30,091,030	-1,950,446	합 계	32,041,476 (100%)	30,091,030	-1,950,4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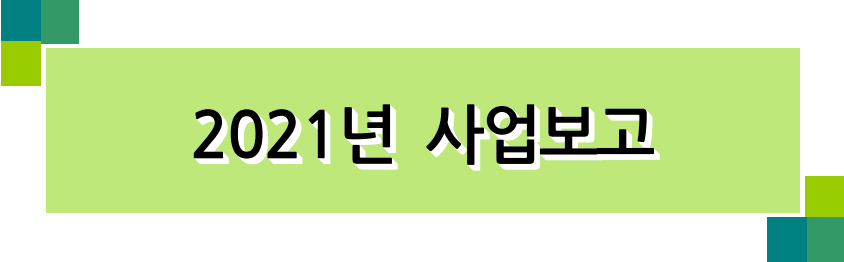
·보통예금: 매년 12월 31일 기준 통장잔액.

차입금: 없음.

·적금(퇴직적립금): 현 실무자 퇴직연금보험 180만원 적립.

·자본금: 2020년에 비해 3,150,446원 감소.

·임대차보증금: 현재 사무실 보증금 20,000,000원.



2021년 사업보고

1 거창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

『함께하는거창』은 군의원의 활동력을 제고하여 지방자치를 강화하고자, 그 일환으로 우선 2021년 하반기부터 거창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함께하는거창』은 이 자료를 토대로 질적인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 함께하는거창

자료 : 거창군의회 회의록

분석기간 : 2021년 9월 1일 ~ 2021년 12월 21일(제258회 ~ 제260회)

- 1) 본 평가는 2021년 하반기에 거창군의회가 개최한 제258회, 제259회, 제260회에 대하여 거창군의회 홈페이지에 제공된 회의록 자료를 ‘인공지능 아이’ - 개발업체 서로닷컴에 의뢰하여 얻은 결과이다. (단, 8항의 ‘비리 & 고발’ 값은 의원의 잘못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행사한 건수로 기간에 상관없이 수작업으로 제공하였다.)
- 2) 본 결과 값은 서로닷컴이 웹사이트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발하여 『함께하는 거창』에 제공하였고, 『함께하는 거창』은 11명의 거창군의원의 데이터를 1명씩 업로드하여 직접 확인하였다. (회의록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의장 김종두, 운영위원 심재수, 신재화, 이재운, 권재경, 권순모의 기회 차이를 고려치 않음. 차후 질적 평가에서는 균등 기회를 제공할 계획임.)
- 3) ‘발언 퀄리티(Lv), 지적 & 검토요청(Lv)’ 값은 인공지능이 모든 의원의 데이터를 동일한 조건에서 판단하고 빅데이터를 빠짐없이 체크 한다는 점에서 객관성을 지님.
- 4) 군의원 평가를 인공지능에 의뢰한 것은 국내 최초이며, 『함께하는 거창』은 앞으로 인공지능을 더욱 발전시켜서 거창군의원의 업무평가를 더욱 세밀하고 공정하게 분석하여 거창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것이다.
- 5)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인공지능이 분석한 군의원 의정활동〉

	권순모	권재경	김종두	김향란	박수자	신재화	심재수	이재운	이흥희	최정환	표주숙
1. 출석(횟수)	35	38	13	35	34	38	38	37	35	35	35
2. 조례대표발의(건수)	2	0	0	0	0	1	0	0	0	0	0
3. 5분 발언(건수)	4	0	0	4	0	1	1	0	0	1	1
4. 질의(건수)	201	589	116	1180	698	590	618	481	189	511	472
5. 발언 분량(KB)	79	173	73	249	103	164	116	155	56	96	94
6. 발언 퀄리티(Lv)	48	35	15	58	26	42	30	34	22	46	40
7. 지적&검토요청(Lv)	11	13	5	15	9	16	11	10	8	6	9
8. 비리 &고발(건수)	0	0	0	3	1	0	0	0	0	0	1

〈의정활동 분야별 순위〉

* 공란은 '없음'

	권순모	권재경	김종두	김향란	박수자	신재화	심재수	이재운	이흥희	최정환	표주숙
1. 출석(횟수)	5	1	11	5	10	1	1	4	5	5	5
2. 조례대표발의(건수)	1					2					
3. 5분 발언(건수)	1			1		3	3			3	3
4. 질의(건수)	9	5	11	1	2	4	3	7	10	6	8
5. 발언 분량(KB)	9	2	10	1	6	3	5	4	11	7	8
6. 발언 퀄리티(Lv)	2	6	11	1	9	4	8	7	10	3	5
7. 지적&검토요청(Lv)	4	3	11	2	7	1	4	6	9	10	7
8. 비리 &고발(건수)				1	2						2

<요약>

- 1) 의원의 출석률이 높았다.
- 2) 조례는 3건이 발의, 통과되었으나, 모두 공동발의의 형식을 취하였다.
- 3) 의원의 절반 정도인 5명이 5분 발언을 하지 않았다.
- 4) 발언의 분량, 퀄리티, 군정 지적은 의원별로 의미있는 차등을 보였다.
- 5) 비리, 고발 관련 의원은 3명 5건이었다.
- 6) 김종두 의원의 활동은 의장으로서의 특수성이므로 의미가 없다.
- 7) 다수 1위인 김향란 의원은 비리, 고발 건수 1위로, 질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 8) 각론은 다음과 같다. 항목별로 순위를 표와 그래프로 제공하고, 간단히 분석함.

2021년 하반기(중간) 거창군 군의원 출석(횟수)



- 1) '출석(횟수)'는 2021년 하반기 3회기 동안 출석한 횟수를 의미한다.
- 2) 월별로 출석 일수는, 9월 - 7일, 10월 - 4일, 11월 - 5일 12월 - 12일이다.
- 3) 분과별 회의 결산특회수는, 예산별위원회 5회, 총무위원회 10회, 산업건설위원회 10회,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 7회, 의회운영위원회 3회 등이다.
- 4) 김종두 의원의 출석 횟수가 13회로, 다른 의원보다 현저하게 적은 것은 의장으로서 분과별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심재수, 신재화, 이재운, 권재경, 권순모 등 5명은 의회운영위원으로 3회의 출석 기회가 추가되었다.
- 5) 전체적으로 의원들의 출석률은 높았다고 평가된다.

<각 위원회 소속의원>

본 회의	최정환,김향란,표주숙,김종두,심재수,이홍희,신재화,이재운,권재경,권순모,박수자 (11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정환,김향란,표주숙,심재수,이홍희,신재화,이재운,권재경,권순모,박수자 (10명)
총무위원회	최정환,김향란,권재경,권순모,박수자 (5명)
산업건설위원회	표주숙,심재수,이홍희,신재화,이재운 (5명)
군정특별위원회	최정환,김향란,표주숙,심재수,이홍희,신재화,이재운,권재경,권순모,박수자 (10명)
의회운영위원회	심재수,신재화,이재운,권재경,권순모 (5명)

2021년 하반기(중간) 거창군 군의원 조례대표발의(건수)



- 1) 본 '조례대표발의(건수)'는 공동발의는 제외하고 대표 발의 의원만 인정할 결과다.
- 2) 권순모, 신재화 의원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 3) 3건이 공동발의, 통과된 사안에 대한 질적인 평가가 요구된다.

<2021년 하반기 의원 조례 발의 내역>

회수	대표발의 의원	조례명	구분
258회	권순모	거창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제정
258회	신재화	거창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제정
260회	권순모	거창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21년 하반기(중간) 거창군 군의원 5분발언(건수)



- 1) 본 '5분 발언(건수)'는 하반기 동안 5분 발언을 한 건수다.
- 2) 2명이 4건이며, 5명은 발언하지 않았다.
- 3) 5분 발언의 질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2021년 하반기 거창군의원 5분 자유발언 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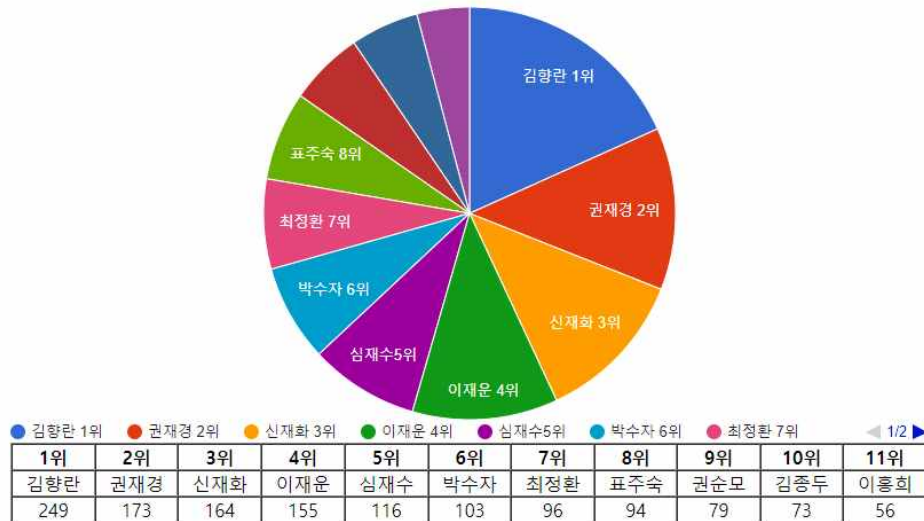
회기	의 원	제 목
제258회	신재화	거창군의 미래성장 동력원을 찾아라 거창군의 미래성장 동력원을 찾아라
제258회	권순모	전군민 통합복지카드 발행으로 복지효율성 제고 촉구 전군민 통합복지
제258회	권순모	밀착형 빈집관리정책으로 관광 및 인구정책 실효성 제고
제258회	김향란	11세부터 18세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 대상을 전체에
제259회	최정환	2022년 거창군의 적극적인 정책추진 및 공공기관 유치를 촉구한다!
제259회	김향란	환경수도 거창을 만들기 위한 제언 환경수도 거창을 만들기 위한 제언
제259회	심재수	증가하는 관광객 유치 관리 대안 모색! 증가하는 관광객 유치 관리
제259회	권순모	2050 탄소중립! 충격없는 사회대 전환 준비를 촉구한다!2050 탄소중립!
제259회	김향란	모든 아이들은 따뜻한 가정에서 자라야 한다. 모든 아이들은 따뜻한
제260회	표주숙	상수원 축산분뇨 관리대책 강화해야 상수원 축산분뇨 관리대책 강화
제260회	권순모	공공병원설립! 적극 행정을 통한 군민 안전망 확보 촉구 공공병원
제260회	김향란	지역거점병원 이전문제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통한 공공의료복지

2021년 하반기(중간) 거창군 군의원 질의(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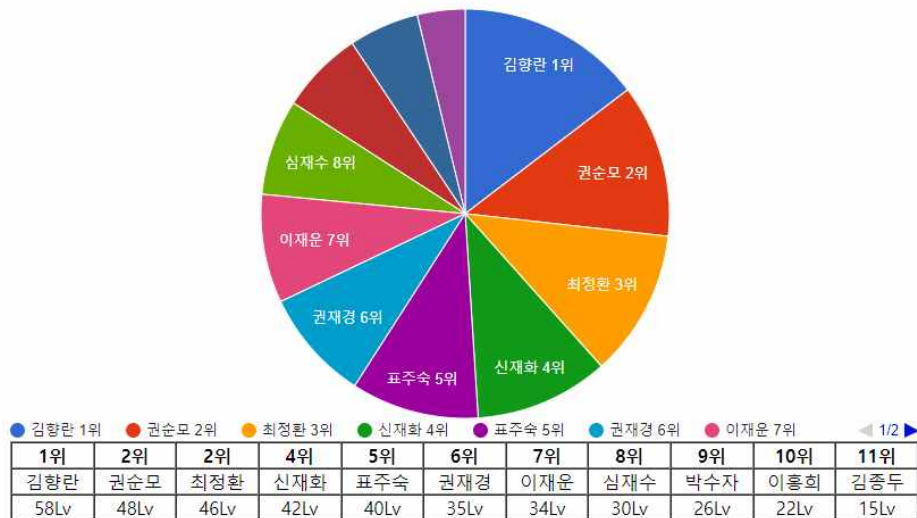
- 1) '질의(건수)'는 의원 간의 차이가 크다. 1위와 11위는 거의 10배 차이가 있다.
- 2) 질의는 연구하는 의원상과 정비례하므로 의미 있는 자료이다.
- 3) 김향란 의원의 질의 수가 압도적이다.
- 4) 질의 내용에 대한 질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2021년 하반기(중간) 거창군 군의원 발언분량(KB)



- 1) '발언 분량(KB)'은 해당 의원이 2021년 하반기에 회의록에 기록된 발언 데이터를 양으로 측정하여 킬로바이트로 환산한 결과다.
- 2) 발언 분량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 3) 질의 건수와 발언 분량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2021년 하반기(중간) 거창군 군의원 발언 퀄리티(L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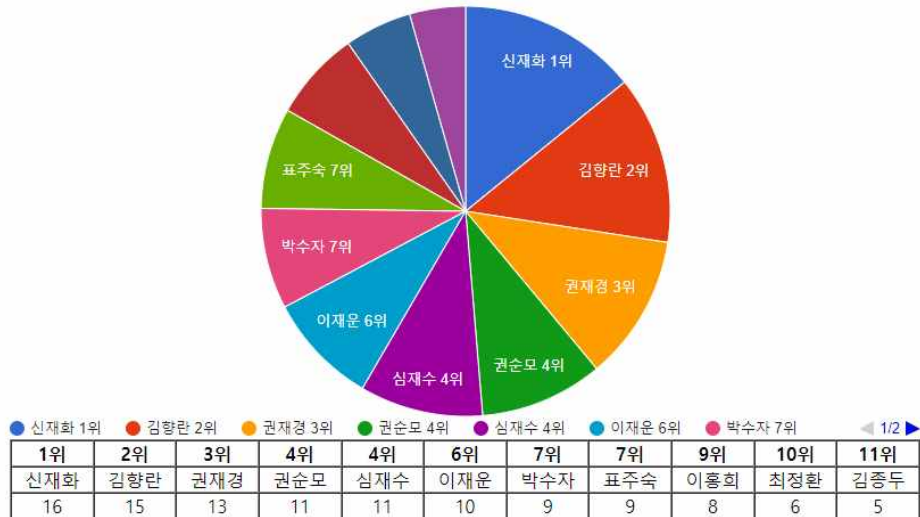


1) '발언 퀄리티(Lv)'는 해당 의원의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발언 패턴을 분석하여 높은 품질의 질의에 점수를 부여하며 얻은 결과 값이다. 예를 들어 해당 의원이 거창 발전을 위해 통계 조사와 관련된 발언을 했다면 그 패턴을 분석하여 유익하다고 판단 되면 점수가 부여된다. 이번 인공지능이 분석한 패턴은 '타 도시 예시 분석', '창조적 연구 제안 분석', '환경 중요도 분석' 등 거창 발전에 유익하다고 판단하는 60여 개의 패턴을 분석 도구로 사용하여 값을 얻었다.

2) 이 값은 의원 질의의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인공지능에 의뢰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국내 최초의 시도라는 의의가 있다.

3) 의원 사이의 발언 수준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2021년 하반기(중간) 거창군수제출 안건에 대한 지적 & 검토요청(Lv)



1) '지적 & 검토요청(Lv)'는 해당 의원이 군수제출 안건에 대해 잘못을 지적하거나 검토를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보일 때 부여된 값이다. 이 또한 '발언 퀄리티(Lv)' 값과 같이 인공지능이 군의원의 발언 패턴을 분석하여 얻은 값이다.

2) 군의원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군수에 대한 견제이므로, 이 수치가 지니는 의미는 크다. 특히 거창군수가 제출한 예산안의 계수조정은 밀실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서 보듯이, 계수조정 때는 마이크를 끄고 계수를 증감 결정하기 때문에, 회의록에는 계수조정에 대한 군의원들의 발언이나 반대 의사 표명이 기록되지 않으므로 군의원의 군수 견제의 역할을 파악하기 힘들다. 따라서 군수에 대한 지적이나 시정요청의 수준은 군의원의 역할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수치가 된다.

3) 인공지능이 분석한 수치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거창군 군의원 비리 & 부정(성명서, 고발 기준)



1위	2위	2위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김향란	박수자	표주숙	권순모	권재경	김종두	신재화	심재수	이재운	이흥희	최정환
3건	1건	1건	0건	0건	0건	0건	0건	0건	0건	0건

성명서 & 고발

김향란	①거창YMCA 김향란 거창군의회 의원을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 ②거창군 의원, 김향란 '농지법 위반' 벌금 700만 원 선고. ③거창군의회 부의장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 카드로 다수의 공무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
박수자	①주민투표법 제21조' 주민투표 당일에는 투표 운동을 금지한다는 조항 위반
표주숙	①표주숙 군의원 자신의 땅 앞 절차 무시하고 다리 건설

1) '비리 & 고발' 값은 의원의 잘못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행사한 건수로 기간에 상관없이 수작업으로 제공된다.

2) 주민의 저항이나 고발은 공직자의 비리나 부정과 관련될 가능성이 크므로 공사익의 차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결론>

1. 이 데이터는 한국 최초로 군의원들의 활동 내용을 인공지능을 통해 분석해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2. 이를 통하여 군의원들은 자신의 의정활동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3. 이 자료는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분석이므로, 의정활동의 질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활동 내용의 평가가 병행되어야 하나, 이는 다음의 과제로 넘기고자 한다.
4. 거창군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군의원의 의정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우리는 이 작업을 통해서 거창군 의원이 군정의 감시와 견제라는 중요한 역할을 더욱 활발하게 전개하기를 기대한다.
5. 이 자료는 곧 언론에 공개할 것이다.
6. 함께하는 거창은 올해에도 이 작업을 계속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2

거창복합교육센터 건립사업

거창군은 법원 검찰 지원지청 자리에 약 893억 원을 투자해 소위“거창군 복합교육센터” 건립을 강행하려 하는데 대하여 『함께하는거창』은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1) 토론회

2021년 7월 21일 거창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거창군협의회(민주평통) 주최로 ‘평화와 교육의 도시, 거창의 미래를 전망하다.’라는 거창군민대토론회가 거창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대토론회에서 임양희(거창군 인구교육과장)은 ‘거창군복합교육센터’ 건립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다른 발표자들은, 거창군의 일방적 추진은 거창군 재정만 낭비할 뿐 교육도시 거창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표가 대부분이었다.

이날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김인수(거창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송민선(거창민주평통 교육홍보분과위원장), 한대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공동대표), 신용균(『함께하는거창』 대표), 송성동(주상초등학교 교장), 박보건(『함께하는거창』 운영위원, 아림고등학교 교사), 조기여(도립거창대학 교수), 박재영(한들신문 기자)

『함께하는거창』이 성명서에서 ‘거창의 교육발전을 모색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고, 이날 발표에서도 아림고등학교 박보건 선생님께서 ‘거창교육협의체’, ‘거창교육연구소’를 설립해서 각계각층의 군민들과 함께 모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거창군의회 최정환 부의장은 협의체와 연구소 설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함께하는거창』은 경상남도에 존재하는 지혜의 바다와 도서관을 조사한 결과, ‘마산 지혜의 바다’, ‘김해 지혜의 바다’ 모두 3층 구조이며, 마산 지혜의 바다는 구암중학교와 구암여중을 통합하면서 구암중학교 체육관을 이용하여 만들었으며, 김해 지혜의 바다 역시 구 주촌초등학교를 리모델링 해서 만들었다. 또 요즘 인기가 많은 ‘합천 가야산 독서당 정글북 역시 폐교(합천 매안리 송산초등학교)를 이용해서 만들었고 2층 구조에 방갈로, 캠핑 테크를 이용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다. 진주 예술교육원 해봄 역시 3층 구조이다.

거창에도 인구 감소로 인하여 아림고등학교나 거창초등학교 등 많은 교실이 남아도는 실정이고 청소년 수련관, 문화의 집, 문화센터도 많은 공간이 있다. 이런 빈 건물은 활용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새 건물만 주장하고 있다.

마산, 김해, 진주보다 인구가 턱없이 부족한 거창에 10층 규모의 건물을 건설한다는 것은 교육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은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신용균 대표 : ‘교육도시 거창’의 전망이란 주제로 발표

박보건 운영위원 : ‘거창 교육을 마음껏 논하다’란 주제로 발표

참조 : 소식지 42호 수록

2) 경남 교육시설 실태조사

■ 일반적 의견

경남에 존재하는 김해, 마산 지혜의 바다는 인기가 좋다. 이런 관점에서 지혜의 바다는 권역별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또 경남에 미술관 등 학생 대상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지혜의 바다나 미술관 등은 확대되어도 좋다고 보인다. 다만 가야산독서당정글북이나 마산, 김해 지혜의 바다처럼 폐교를 이용한다거나 빈 공간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 경남 교육청 의견

2021년에 경남체험 교육박람회가 개최되어 약 5억 정도 투자되었다. 경남 교육청은 앞으로도 체험관 확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현재 창원에 과학체험관 2개, 진주에 예술체험관 1개가 있고 거창에는 수학체험센터(거창초등학교 별관2층)에 있는데 경남 교육청은 수학체험관을 경남의 주력 체험관으로 선정하고 있다. 도서관은 가야산독서당정글북과 마산, 김해 지혜의 바다 2개가 있다. 조사결과 거창권역 문화체험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 거창권역 지혜의 바다가 필요해 보인다.

■ 경남 권역 도서관 실태조사

가야산독서당정글북 도서관

수용인원 : 1층(126명), 2층(126명)

1층	책오름(10명), 모글리의 숲(50명), 정글온(30명), 책짓는방(26명), 동아리방(10명)
2층	컬러방(6명), 정글잼(30명), 정글림(30명), 작가방(12명), 웹툰방(20명), 낙서방(8명), 음악방(20명)

진주 예술교육원 해봄(예술체험교육프로그램)

음악, 미술, 연극, 뮤지컬, 전시, 공연 등 다양한 예술특화프로그램 운영

1층	소공연장, 회의실, 홀으로 해봄.
2층	분장아트 해봄, 나무로 해봄, 오케스트라실, 가야금 해봄.
3층	향으로 해봄, 창의건축 해봄, 운동해봄, 영상으로 해봄, 연기해봄, 춤으로 해봄, 소리로 해봄.

김해 지혜의 바다(구. 주촌초등학교)

1층 테마별 체험공간	ABsea	영어 주제 독서 · 체험 공간
	나눔방	라운드 벤치 공간으로 소통형 프로그램 운영
	공룡방	공룡 테마 과학 책놀이 공간
	등대방	등대모양 다락형 자유 독서 공간
	동화방	동화의 세계를 체험하는 프로그램 공간
	별빛마루·달빛마루	계단식 자유 독서 공간으로 강연 · 공연 운영
	더채움방1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아이디어 팩토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메이커스페이스
	더채움방2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동아리방	독서동아리 · 학습동아리 활동 공간
	기업사랑방	김해 지역 중소기업 제품 전시 및 홍보 공간
2층 복합독서문화공간	디지털존	디지털 정보 검색 등 전자콘텐츠 이용 공간
	꿈다락방	별집 모양 다락형 독서 공간
	책마루	편안하게 독서하는 공간
	웹툰존	만화를 즐기는 Fun한 공간
	문학의방	야외 휴게 공간
	지혜갤러리	다양한 예술 작품 전시
3층 테라스형 열람 공간	리딩*존 테라스형	몰입 독서 공간

마산 지혜의 바다(구암중 · 구암여중 통합 구. 구암중 체육관)

1층 테마별 체험공간	동화방	책놀이와 함께하는 이야기 공간
	레고방	레고 체험 공간
	보드방	보드게임 놀이 공간
	상상창작방·지혜꿈발 전소	메이커활동 및 미래 탐색 공간
	웹툰방	만화를 비치한 신개념 독서 공간
	힐링방	책을 통한 치유 및 힐링 프로그램 운영
	전시서가	매월 테마 전시가 운영되는 전시 공간
	더채움방	평생학습 강좌프로그램 및 독서동아리 활동
	구암홀	시청각실
	바다쉼터	야외 휴게 공간
2층 복합독서문화공간	GNE존	GNE(경남교육) 미로 서가
	꿈테이블	30인이 함께 누리는 독서공간
	꿈다락방	별집 형태의 가족 독서 공간

	지혜마루	편안한 독서 및 오픈형 공연 공간
	디지털존	디지털 전자정보 활용 공간
	카페테리아	차와 커피를 즐기는 공간
	지혜쉼터	카페형 휴게 공간
3층 테라스형 열람 공간	리딩*존	테라스형 도서 열람 전용 공간

경남 권역 도서관 실태조사 결과 합천 매안리 송산초등학교 폐교를 활용한 합천 가야산독서당정글북이 지역 특성을 잘 살린 매우 좋은 사례로 알려져 있었다. 합천의 수려한 대자연 속에서 즐기는 휴식(가야산), 독서캠ป์를 통한 힐링의 시간(독서당), 책이 가득한 상상 놀이터(정글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독서캠ป์를 통한 힐링의 시간을 가지면서 방갈로(10개) 최대 4명, 주중(2만원), 주말(3만원), 캠핑테크형(6개) 최대 4명, 주중(5천원), 주말(5천원)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고 주말 공연 프로그램으로 북콘서트, 마술, 퀴즈, 인형극, 디즈니 애니메이션 OST, 가족 참여 공연 등이 있었다. 운영 대상은 경남지역 유·초·중·고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가족이었으며 월요일 정기휴관 주중, 주말 당일 이용은 예약 없이 이용 가능하였다.

3) 운영위 보고 내용

■ 함께하는거창 운영위 보고 I (거창군 동향)

거창군은 『함께하는거창』과의 대화에서 협의체를 구성할 경우 기획단은 필요 없지만 협의체는 대표들로 구성되므로 ‘실무추진단’을 별도로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실무추진단은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생각을 담아야 실무에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최정환 의원 의견을 가지고 교육담당자와 검토 중.

협의체 조례안은 대토론회 발표자 간담회 후 발표할 것임.

(거창군민 대토론회 발표자들과 카톡으로 의견 조율 중)

거창군은 ‘거창교육연구소’ 설립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거창군 같은 작

은 도시에서 교육연구소까지 운영하기는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민간 차원에서 예를 들면 ‘교육시민연대’ 같은 곳에서 동아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거창군에서 실무추진단을 구성하면 그곳에서 연구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거창군은 거창복합교육센터와 관련해 소그룹으로 주민 의견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세부 계획은 군수 결재 후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거창복합교육센터 타당성 조사는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담으려 했음을 시인했고, 앞으로 의견수렴을 통해서 뺄 것은 빼고, 남길 것은 남기겠다고 말하면서 『**함께하는거창**』에서 말했듯이 내용이 먼저 정해지고 건물의 크기나 디자인이 정해지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리고 거창군은 거창군 행복교육지구사업 선정(도교육청)으로 지원금 50%(5억)과 거창군(5억)을 확보해 어떻게 사용할지 세부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 함께하는거창 운영위 보고Ⅱ(거창군 동향)

인구교육과 임양희 과장 주최로 소그룹 간담회(20명 내외, 하루 2~3그룹)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중.고 교장선생님, 학생대표, 학부모대표, 대학생대표, 학원선생님,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예충, 도서관운영위원회, 이장협의회, 새마을회, 생활개선회, 희망하는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그룹 간담회는 9월 30일까지 19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함께하는거창**』이 간담회 요청할 경우 응하겠으며 날짜는 아래 중에 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소그룹 간담회 가능 날짜 : 15일, 16일, 29일, 30일 제외하고 가능함.

■ 함께하는거창 운영위 보고Ⅲ(거창군 동향)

교육 협의체 설립 현황을 살펴보면, 최정환 부의장이 조례안을 거창군청(단독방)에 전달하였다. 그것을 인구교육과 임양희 과장이 검토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대토론대 발표자 간담회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임양희 과장 : 최정환 부의장이 간담회 날짜를 잡으면 하려고 한다.

최정환 부의장 : 자신이 생각한 조례안을 전달했기 때문에 군청에서 검토 완성해야 한다.

서로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다. 『**함께하는거창**』은 좀 저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임양희 과장은 최정환 부의장에게 문의해서 진행하기로 하겠다고 전했다.

■ 함께하는거창 운영위 보고Ⅳ(거창군 동향)

거창군은 타당성 조사부터 약 2천여 명의 설문조사를 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 거창군이 바라본 거창군민들의 의견은 거창한마음도서관, 거창도서관, 거창문화센터가 있는데 뭐하러 도서관을 다시 짓는가? 라는 소리는 별로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오히려 현재 도서관, 공연장이 있어도 더 많이 지어서 활용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으면 사업이 더 커질 수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거창군은 너무 많은 기능을 담으려만 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거창군은 『함께하는거창』에서 축소 의견을 냈으면 좋을 정도라고 말했다.

아울러 군의회에서는 예산 확보를 계속 물어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예산을 논할 때가 아니라고 주민 의견수렴이 먼저라고 대답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거창북합교육센터에 미술관도 함께 넣자는 군의원도 있다고 전했다.

■ 함께하는거창 운영위 보고Ⅴ(거창군 동향)

거창군은 10월 13일 협의체 구성을 위한 대토론회 참가자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그리고 올해 안에 조례안을 완성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간담회 기초자료와 10월 주민공청회 의견수렴을 통해 내년에 수정용역 실시하고, 협의체에 보고하여 의견 조율해서 복합교육센터 기본 계획 수립할 예정이며, 그 자료를 가지고 국·도비 재원을 확보하고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고 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함께하는거창 운영위 보고Ⅵ(거창군 동향)

거창군은 소그룹 간담회 결과를 통보해 왔다. 결과를 살펴보면 예충, 민협 등은 미술관, 전시관이 필요하다고 했고, 어린이집은 어린이들 뛰노는 공간 필요하다고 했으며, 고등학교 진로상담 선생님들은 좋은 대학교에 가는 것이 필요한데 사실 시설에는 관심 없다고 고급수학, 고급영어 공간 필요하다고 말했고, 합창실, 악기 연습실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학생들은 하교 후 학원가기까지 친구들과 쉬는 공간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거창군은 교육은 거창대학 평생교육관에서 하면 되지만,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 공간이 부족하다고 호소하면서 청소년 수련관에 컨테이너라도 넣어야 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함께하는거창』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창군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에도 공간이 있으며, 문화센터, 읍사무소(읍민의 방), 하천센터, 동사무소, 경로당 그리고 아립고등학교, 거창초등학교 등 이용 가능 공간이 무수히 많았다. 또한 인구가 계속 감소함으로 빈 공간은 더욱 많이 생길 것이고 사용하는 사람은 더욱 줄어들 것이므로 무조건 큰 건물을 짓는 것은 문제라고 파악된다.

■ 함께하는거창 운영위 보고Ⅶ(정보공개청구)

『함께하는거창』이 정보공개청구로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거창군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모두 대관료 수입은 0원으로 조사 되었다. 운영비는, 청소년수련관 : 7억 6천만 원, 청소년문화의집 : 3억 5천만 원 정도이다. 도서관 운영도 많은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거창군복합교육센터를 건립하면 그곳에서 매년 15억 이상 적자가 예상되며 건물 관리비용까지 합치면 매년 수십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함께하는거창 운영위 보고Ⅷ(시사단 거창군수 면담 요청)

거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칭 이하 시사연)는 11월 초 군수 면담 전까지 각 단체의 입장을 취합한 후 공통 의견 만들어 군수에게 제시하기로 하였다.

『함께하는거창』에서 조사한 바에 의해 추론을 하자면 거창 읍내에 큰 건물이 있다고 해서 그 건물 때문에 거창으로 이주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도시에 더 크고 좋은 건물들과 발전된 교육 인프라가 많음). 그리고 거창으로 이주할 학부모는 해당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을 검토하지 읍내 큰 건물에 현혹되지 않음이 많은 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2021년 10월 현재 거창에서 태어난 아이 150명 연말까지 200명 내외로 예상되기 때문에 인구 감소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또 2025년부터 일반고의 전국단위 모집이 금지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거창으로 오기는 어렵게 되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며 앞으로 완전한 고교 평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 함께하는거창 운영위 보고Ⅸ(인구 감소에 따른 대안)

인구 감소에 따른 대안으로 강원도 화천군은 학생들에게 등록금 지급 또는 수능 점수에 따라 장학금 차등 지급하는 방법을 실시하고 있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 지급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하고 있었다. 그 밖에 함양군 서하면에서도 좋은 사례를 찾을 수 있었다. 거창군은 가북면, 신원면에서 인구증가 폐교 탈출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 인구증가 폐교 탈출 프로젝트

가북초, 신원초는 인구증가 폐교 탈출 프로젝트로 주민위원장, 학교장, 면장으로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서울에서 설명회 개최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 거창으로 이주를 할 경우 빈집은 임대(5~10만 원)를 지원하고, 1가구당 2천만 원으로 리모델링 7년 + 일자리 소개(농업, 승강기산업단지, 공공근로) 등을 지원하며 현재 6가구 리모델링 중이고, 2021년 LH임대주택 신원면 12채, 가북면

12채 건설을 올해 안에 시작한다고 전했다.

- 거창전문대학교 학생지원

주소가 거창으로 된 학생에 한하여 1학기당 30만원, 1년 60만원, 2년 120만원을 제공한다. 간호학과 4년제로 인하여 간호동, 실습동을 신설하고 4인실을 2인실로 변경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힘쓴다고 전했다.

- 함양 서하면 서하초등학교 사례

한때 1천 명의 학생에서 2019년 14명으로 감소했는데. 서하면 주민들과 동창회, 향우회 등이 나서서 ‘서하초등학교 학생 모심 위원회’를 결성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교육청이나 군청 지원 없이 오직 주민들과 학교 관련자들의 모금액 1억 원으로 시작하였다. 2021년 10월 현재 45명 학생 수와 주민 수 100여 명 상승 효과를 보고 있었다.

- 강원도 화천군 교육지원 사례

강원도 화천군은 대학 가면 등록금에 월세까지 지원하고 있었다. 아래는 언론에 보도된 화천군의 교육정책 내용이다.

‘아이 기르기 좋은 화천 만들기’라는 목표를 세우고 교육정책에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2020년 558억 원을 편성했는데 전체 예산(4034억 원)의 13.8%를 차지한다. 대학생과 고등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비롯해 공교육 지원, 글로벌 인재 육성, 인프라 구축, 문화환경 개선 등 다양한 형태로 교육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화천 출신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면 등록금 실납입액을 100% 지원해주고 월세나 기숙사비로 월 5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학자지원금과 거주지원금으로 22억 원이 지출됐다. 화천에는 대학이 없기 때문에 지원받는 대학생들은 모두 다른 지역에 산다. 세계 100대 대학으로 해외 유학을 가면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파격적인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으로 유학을 간 한 학생은 지난 1년간 7400만 원을 지원받았다. 단, 부모가 3년간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살아야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버지가 인사이드로 타 지역에서 살게 되는 것은 예외로 인정한다.

전학률, 49.3%에서 13.0%로 급감

교육 투자는 눈에 잘 보이지 않고 효과도 더디게 나타난다. 눈에 보이는 사회 간접자본(SOC) 투자를 하면 “저 다리는 ○○○ 군수 때 만들었다”는 평가를 쉽게 받을 수 있지만 교육 투자는 그렇지 못하다. 그럼에도 교육 투자에 집중하는 이유에 대해 최 군수는 “다리 놓고 길 넓히는 것은 좀 뒤로 미루더라도 아이들은 공부할 때가 있으니 이를 놓치지 않게 해주자는 것이다.

화천군, 지역학교와 '사교육 극복' 교육협력 주목

화천군이 자기주도 학습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하고, 학교가 학습공간과 수학과 영어 강사의 채용과 관리를 맡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 함께하는거창 운영위 보고IX(복합교육센터 부지 결정)

거창군은 2024년 12월 최종적으로 거창군복합교육센터 부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거창복합교육센터는 지혜의 바다 - 거창도서관은 36년 사용했으므로 거창교육청에서 지혜의 바다 도서관(마산, 김해, 통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진로직업체험센터, 청년일자리, 동아리(현재 거창군 39개 성인 동아리 공간 부족) + 연극고등학교 공연장(현재 문화센터 공연장으로는 너무 적음) 등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께하는거창』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창군 내 동아리/동호회 이용 가능 시설로는 문화센터, 읍사무소(읍민의 방(주민자재회에서 주말 이용)), 하천센터, 동사무소, 경로당 등이 이용 가능하다. 동아리방으로 이용하려던 강남의 모텔은 LH에서 청년행복주택 60세대(이주노동자, 무주택자, 신혼부부) 지하는 '커뮤니티공간' 입주자나 청년 활동 공간으로 사용하므로 빈공간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토교통부는 거창군 숙박시설에 대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선도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설계에 착수한다고 밝혔지만 진행이 더딤니다.

■ 함께하는거창 운영위 보고X(거창전문대 신설과)

『함께하는거창』은 거창복합교육센터 건립(사업비 893억 원, 매년 15억 적자)과 관련해서 거창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큰 건물을 짓는 것보다 거창전문대에 새로운 과를 신설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고 조사를 해 보았다만 거창전문대에는 교수 인원수가 정해져 있어서 현재로서는 교수가 전과를 하거나 현직의 교수가 퇴직을 하고 신설과의 교수가 와야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밖에 메타버스 등 최첨단 공간을 마련하자는 안도 있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를 중점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 거창교육시민연대에서는 학생(고등학생) 기본소득 30만 원 지급하자는 안을 전달하기도 했다.

※ 2021년 12월 현재 거창군은 12월 중에 100인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거창복합교육센터 건립에 대해 전면적 재검토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으나 코로나 관계로 12월에는 개최할 수 없고 내년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4) 시민단체와 연대 대응

『함께하는거창』은 2020년 11월 18일 거창북합교육센터 건립 계획(사업비 893억 원, 매년 15억 적자)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이후에 꾸준히 거창군의 교육발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실태 파악과 운영위원들의 회의를 거듭해 왔다. 그리고 사안이 큰 만큼 거창의 시민사회단체(이하 시사단)와 연대해야 마땅하다고 판단하고 시사단 실무자 카톡방에 『함께하는거창』 성명서 전달하고 함께 논의할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시사단 대표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 거창시민사회단체 연대 요청 메시지 전달

거창북합교육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거창시민사회단체의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함께하는거창』’은 거창북합교육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2020년 11월 18일 ‘거창군수는 ‘거창군북합교육센터’ 건립 계획을 즉시 중단하라!’라는 주제의 성명서를 낸 바가 있다만, 거창군은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아래에 ‘『함께하는거창』’의 성명서를 첨부하오니 각 단체에서 의논해 주시고 논의 결과를 공유했으면 한다.

거창군 인구교육과 임양희 과장에 의하면 거창군북합교육센터 건립 후에도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은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고 한마음 도서관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거창도서관은 교육청과 논의 후 결정될 것이라고 한다.

■ 거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논의 결과

거창군은 교도소 추진처럼 밀실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미 지원 지칭 자리에 건물을 세울 것을 정해놓고 건물에 무엇이 들어갈지 의견을 묻는 것은 형식적인 절차와 명분에 불과하다.

제대로 거창의 교육을 생각한다면 교육전문가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군청 공무원 등이 모여서 큰 방향을 잡아놓고 어떤 건물이 필요하고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하나하나 따져서 추진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 모두가 생략되었다.

893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중 삼중 낭비성 예산이 투입될 우려가 크다.

시민사회단체에서 간담회를 열어 전문가와 함께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 우리의 입장을 군에 전달하도록 한다.

■ 거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인구교육과 담당자 간담회 개최

2021년 10월 29일 오후6시 30분 청소년수련관 회의실에서 거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거창군 인구교육과 담당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여단체는 『함께하는거창』, 전교조, 푸른산내들, 농민회, YMCA이다.

거창군은 거창군복합교육센터 건립에 대한 브리핑을 가졌지만 기존의 내용과 다른 것이 없었다.

거창군은 브리핑과 함께 시사단에 설문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설문지가 복합교육센터를 짓는 전제하에 작성되었고 형식도 설문지에 합당하지 않아서 시사단은 설문에 응하지 않았다.

■ 거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거창군수 간담회 개최

거창군 복합교육센터건립과 관련하여 시사연은 2021년 11월 15일 오후5시 거창군청 상황실(2층)에서 거창군수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시사연 참여단체는 농민회 윤동영, 『함께하는거창』 이종성, 전교조 강경근, 여성회 김귀옥, 여성농민회 박정숙, 민미협 정광희, 사사세 이점도, YMCA 홍정희, 희봉노조 김영진, 거창교육시민연대 송성동, 연소주 유재균, 푸른산내들 박재영으로 이루어졌다.

간담회에서 시사연은 거창군복합교육센터 전면적 재검토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그리고 군수의 답변이 있었다. 내용은 아래 첨부자료와 같다.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의견서와 거창군 답변서는 자료에 첨부 -



3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

LH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전 국민으로부터 공분을 일으키고 있을 때 거창시민사회단체는 모임을 개최하고 ‘거창교도소부지 전수조사 기자회견’을 준비하였으나 몇몇 단체들의 불참의사로 무산되었고, 3월 18일 11시 30분 거창농민회와 거창여성농민회 주체로 기자회견을 가지게 되었다. 거창군은 여기에 대해, 해당 사업 관계 공무원과 6급 이상 공무원은 배우자와 직계비속까지 포함 자체 시행한 개발사업 7곳과 민자사업 대상지, 10년 전까지 조사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임계역간행**』은 거창군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감행하였으나 보안, 정보공개 등의 이유로 번번히 막혔고 결국 거창군의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는 투기 의심 정황은 아니라고 결정짓고 말았다.

1) 시민단체와 연대 대응

3월 15일 오후 2시 30분 거창군청 정문에서 거창교도소부지 전수조사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였으나, 푸른산내들이 운영위의 반대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자, YMAC에서도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취소되었다.

회견문은 운영위 카톡방에 공유하였다.

3월 18일 11시 30분 거창농민회, 거창여성농민회 “거창은 농지투기의 청정지역인가?” 주제 기자회견을 가졌다.

3월 19일 거창군청은 “거창군, 전 공무원 대상 부동산투기 의혹 전수조사 나서”라는 주제로 보도자료를 발표했다.(보도자료 첨부)

3월 22일 시사단은 논평을 발표했다.(논평 첨부)

3월 23일 오후 3시 군수 면담을 하였다.

군수면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 주요사업 현황 9곳이다.(파일첨부)

거창구치소는 이흥기 군수 때 담화문을 발표하고 상세하게 조사를 했기 때문에 다시 조사하기는 어렵지만 이번에 거창지원 지청 이전부지 조성사업 등의 조사에서 나타나면 같이 조사를 할 것이니 포함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말했다.

2. 10년 전까지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부분은, 지구지정 승인일이 애매한 사업에

대해서는 2년 더 이전부터 조사를 하기로 하였다.

3. 전.현직 공무원 대상 조사에 대해서는, 이미 퇴직하여 민간이 신분이 된 사람은 공무원으로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퇴직 공무원 조사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4. 거창군은 공무원 땅투기 전수조사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하였다.
5. 거창군 특별조사단 단장을 기획예산담당관 과장에서 부군수로 변경하였다.

현수막 제작



■ 거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논의 결과(5월 31일)

군에서 발표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시사단에서 의혹을 제기한 부분을 교묘하게 비껴나갔고 의혹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통상 사람들은 사업 지정 기간 이전에 이미 정보를 알고 투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군에서는 지정한 기간을 임의로 정해서 그 기간 내에 거래가 없다고 하면서 면죄부를 주었다. 이에 대해서 시사단은 오늘, 내일 성명서 내용을 검토하고 이번 주 목요일(6.3)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성명서를 발표 한 이후에 추이를 보면서 또 대응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서 작성 : 『함께하는거창』 이종성 사무국장

성명서 발표 전 『함께하는거창』은 대표님과 논의하여, 정확한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모든 대응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시사단에 이를 알렸고, 시사단도 모든 대응을 보류 중에 있다.

<거창군 전수조사 보도자료 자료 첨부>

<전수조사 결과 브리핑 자료 첨부>

2)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제보

김천리 문화원 주변 새 도로 주변 땅이 원래 이 땅 주변에 도시계획선이 있었는데 언제부터 도시계획선 사라졌다고 한다. 그래서 땅 주인은 도시계획이 취소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주○○ 기자에게 전화가 와서 팔아라 해서 7천만 원에 팔았는데 갑자기 도시계획 도로가 생겨서 주 기자는 7천만 원의 이익을 보고 판매를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주○○ 기자 아내 4촌 동생이 군청 김○○ 계장이라고 전했다.

본 제보는 기존 소유주 제보라고 전했다. 기존 소유주인 제보자는 땅을 산 사람과 아는 사이라서 자신을 공개하지 않으려 한다고 한다. 그래서 이름이나 연락처를 알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암게이닝거장**』은 제보 건의 토지, 건물 모두 등기부등본을 열람 했는데, 토지는 2001년에 이○○이란 사람이 소유했고, 건물도 이○○ 이란 사람의 소유. 제보자가 말하는 주○○ 기자나 김○○ 계장과 관련된 인물로 보이는 사람은 없었다.

거창군청에 문의한 결과 그 주변의 도시계획은 2018년에 이루어졌다.

제보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4 JC 단합대회 비용으로 3천만 원 지원

거창군이 JCI(거창청년회의소) 행사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고 거창군의회는 예산안에서 2,000만 원을 삭감한 3,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대해 『함께하는거창』과 거창시민사회단체는 특별 단체에만 예산을 지원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1) 시민단체와 연대 대응

인구교육과 청년정책담당자에 의하면 작년 12월 군수 면담에서 JC가 경남울산대회 예산 협조를 부탁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작년에 함안군에서 JC 경남울산대회를 개최했는데 함안군이 5천만 원을 지원한 사례가 있고, 2014년에 거창군에서 경남울산대회 때 2천만 원을 지원한 사례가 있어서 올해 5천만 원을 추경에 올렸는데 2천만원 삭감하고 3천만 원이 통과되었다고 한다.

거창시사단 대표자 단독방에 이 사실을 알리고 모임을 주선했으나 전교조 외에 호응하는 단체가 없었다. 4월 26일 실무자 모임에서 다시 거론할 예정이다. 전교조 송성동사무국장과 구체적 논의를 추진하려고 한다.

2) 운영위 보고 내용

■ 함께하는거창 운영위 보고 I

5월 31일 시사단 회의에서 동참할 단체가 더 있을 것 같다고 시사단 단독방에 올려달라고 해서 올렸고, 전교조, 거창여성회, 민미협, 희봉위생노조가 함께하기로 하였다.

■ 함께하는거창 운영위 보고 II

6월 운영위에서 사무국장 의사결정대로 하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사무국장 의견

『함께하는거창』 사무국장이 시사단에 참여 의사를 먼저 물었고, 시사단에서 전교조, 거창여성회, 민미협, 희봉노조가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이므로 입장문을 발표하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하고 운영위에 이 사실을 공지했으나 결정적 의견이 없고, 참여 단체가 너무 적어 본 입장문은 발표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였다.

<미발표 성명서 자료 첨부>

5 거창국제연극제 활성화 방안

거창군이 부적절하게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함으로써 『함께하는거창』은 힘겨운 싸움을 계속해 왔다. 하지만 결국 상표권은 10억을 지급하고 마무리가 되었다. 이에 『함께하는거창』은 새롭게 시작할 거창국제연극제를 제대로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2021년 코로나 사태로 무산되고 말았다.

1) 운영위 보고 내용

■ 함께하는거창 운영위 보고

거창군청 문화관광과에 문의한 결과 올해 예산은 8억 정도로 전년도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했다.

문화관광과는 문화재단에서 요구한 대로 예산편성을 해서 넘겨 주고 문화재단에서 전문가 영입 등 모든 계획, 수립, 예산집행을 한다고 전했다.

문화재단 1과(1계, 2계, 3계)에서 연극제 계획수립을 하고 거창군청에서 계장을 파견하여 감시 감독한다고 전했다.

의회 보고는 사무관 이상이 해야 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 과장이 한다고 말하고 추경은 4월에 올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거창국제연극제는 정상개최 / 실내 축소 / 비대면 유튜브 온라인 3가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절차는 계획서 수립 > 이사회 통과 > 의회 보고 > 주민 의견 수립 > 확대보완 순서이다.

거창문화재단 경영지원단 경영지원단장은 아직 기본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2021년 02월 24일)

기본안을 문서화 해서 이사회를 거치고 군수결재 후 계획안에 따라 일반 군민 의견 수립할 예정이고 기본 안은 3월 중순쯤 나올 것 같다고 전했다.

거창군청 문화관광과는 거창국제연극제가 24일 이사회에서 7~8월 개최 확정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4월 초 이사회 통과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종성 : 주민 의견 수립은 언제 가능한가? 과거 이전 과장은 의회보고 이후에 가능하다고 했다.

조호경 : 계획서 수립 > 이사회 통과 > 의회 보고 > 주민 의견 수립 > 확대보완. 주민 의견수립은 계획서 수립 단계에서 이루어져야지 의회보고 후에 주

민 의견수렴은 불가능하다.

이종성 : 그럼 계획서 수립 단계에서 주민 의견수렴 할 수 있게 해 달라.

조호경 : 문화재단과 논의해서 홈페이지에 주민 의견 게시판을 만들겠다.

이종성 : 게시판만으로는 부족하다. 문화재단의 계획안을 오픈하고 그 아래에 등록할 수 있는 게시판을 링크시켜라.

조호경 : 노력해 보겠다.

민미협(민족미술인협회 거창지부) 지부장 정광희씨 문화재단 이사회로추대 되었다. 24일 날 첫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때 거창국제연극제 운영위 구성 협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정광희 민예총 사무국장이 한갑수(극단 입체 부터 13회까지) 이외는 인물이 없다고 구인모 군수에게 제안했다고 전했다.

02월 24일 통화, 아직 기본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임.

기본안을 문서화 해서 이사회를 거치고 군수결재 후 계획안에 따라 일반 군민 의견 수렴할 예정.

3월 중순쯤 기본안이 나올 듯함.(이사회에서 세부계획을 요구하여 4월 중순 쯤)

4월 초 이사회, 구체적 논의 필요로 연기.

4월 초에 간담회를 개최하여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추가하려고 계획.

4월 말 이사회 개최 예정.

4월 20일 군의회(진흥회측 2억 요구)

이사회는 공개모집을 통해 12명으로 구성(이사회 자료 30일까지 통보) 되었다. 이사는 공개모집으로 총 40명 신청하였고, 추천위원회 7명(군의회 3명(김종두 의원이 이용구 기자, 과장(5급)했던 박완목(현, 향교), 풍물패 회장 김도권 3명을 문화재단 임원, 추천위원으로 추천함), 재단이사회 2명, 군수 2명)이 2배수(24명) 추천 후 군수가 최종 12명 결정되었다.

거창국제연극제 진행 과정이 너무 불투명함.

군민의견 수렴 창구가 없음.

문화재단 추천위원(7명) 선출 방식이 폐쇄적이다.

군수(2명), 군의회 의장(3명), 문화재단 이사회(2명)을 선출을 한다는 것은 군수와 군의회 의장의 사적 의견이 너무 지나치게 반영되는 구조다.

열린 행정 시급한 과제

거창군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거창문화재단 열린공간 > 공고&소식 게시판에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고 전했다.

■ 게시판 공지 내용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거창한마당대축제, 거창국제연극제, 공연, 전시 등 (재)거창문화재단 추진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재)거창문화재단 추진업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자유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소중한 의견 잘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반영토록 하겠다.

■ 함께하는거창 운영위 보고

지난 20일 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가 상표권 매입금 10억 원 중 미지급금 2억 원과 이자 715만 684원, 부대비용 70만 8,100원을 포함해서 총 2억 785만 8,784원을 강제 추심했다.

법원은 지난 6월 21일 합의금 10억 원 중 미지급금 2억 원에 대해, 거창군에 지급명령을 내렸다. 효력은 7월 6일부터 발생했고 이자는 연 12%이다.

2020년 12월 거창군은 집행위의 소송취하를 대가로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을 10억에 매입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거창군의회는 2021년 1월에 열린 1차 추경에서 상표권 매입금 10억 원 중에 2억 원을 삭감했다.

거창군의회는 법원의 미지급금 명령에도 불구하고 미지급금 지급을 계속 반대하자 집행위는 법 절차에 따라 채권을 압류했고 추심 절차를 시작했다.



6 포괄사업비(주민편익사업)

군의원, 군수 등이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었던 기존의 포괄사업비는 2012년 행안부 지침으로 주민편익사업으로 변경되었다. 하지만 이름만 바뀌었을 뿐 아직도 여전히 선심성으로 사용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

군수, 군의원 도깨비 방망이 포괄사업비(주민편익사업) 내역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기존의 포괄사업비는 법을 정비하면서 지역구 민원 해결을 위한 주민편익사업으로 변경되었다. 군의원 개인이 사용하던 포괄사업비는 주민편익사업이란 이름으로 통틀어 묶여 있는 예산으로 변경되었다.

거창군은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 담당과에서 일일이 나갈 수 없어서 군의원이 민원처리할 때 사용하도록 편의를 주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주민편익사업비는 지역구 민원들 민원처리, 배수로 공사 등 대부분 건설과 공사로 사용되고, 각종 공사로 나누어 들어가기 때문에 군의원 한 명이 어디에 사용했는지 알기는 어려움 실정이다.

한마디로 대부분의 공사가 주민편익사업이란 이름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정인(군수, 군의원 등)이 사용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다. 일반 항목들과 섞여 있고 서류도 문서로 남기지 않고 흔적도 없기 때문에 예산서로 구별하기 어렵고 증거를 찾기 어렵다.

2020년 군의원 1인당 3억 정도 추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추적할 수 없다.

넓게 보면 주민편익증진을 위해 사용한다고 할 수 있으나 좁게 보면 선심성 예산으로 사용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 졌다고 볼 수 있다.

예산은 3~4월경에 정해지며 매년 금액이 다릅니다.

거창군청 기획과에 문의한 결과 2012년 행안부 지침으로 포괄사업비는 주민편익사업으로 변경되었다. 주로 도로포장, 안길정비 등으로 편성된다. 군수, 군의원이 각종 사업을 건의하면 부서검토 후 사업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군수, 군의원 누구도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은 전혀 없다고 전했다.

7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는 군수, 부군수, 각과의 과장, 군의회 의장, 의회운영위원장 등이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부분 사적으로 유용되고 있다.

거창군 행정과에 문의한 겨로가 업무추진비는 매월 얼마로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매년 계획을 세워서 대략 월 얼마 정도까지 사용이 가능한지 결정한다고 한다.

군수, 부군수, 각과의 과장(시책업무추진비)는 군청홈페이지 정보공개 > 업무추진비공개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업무추진비를 살펴보면,

군의회 의장 : 2백만 원, 부의장 : 1백만 원.

의회운영위원장, 총무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70만 원, 과장, 총무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 30만 원 정도이다.

11월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일 자	사용내용	사용장소	사용금액	사용방법	대상자/인원
2021-10-29	행사참여 수행 직원 격려	송가네국밥	77,000	제로페이	소속직원 등 4명
2021-10-29	업무협약 체결 추진 직원 격려	복사골	232,000	카드	소속직원 등 8명
2021-11-01	경조사비 지급	이*화	50,000	현금	이*화
2021-11-01	경조사비 지급	임*행	50,000	현금	임*행
2021-11-01	경조사비 지급	박*준	50,000	현금	박*준
2021-11-01	행사 추진 직원 격려	레아모	150,000	제로페이	소속직원 등 8명
2021-11-01	주민토론회 추진 직원 격려	참숯불고기	168,000	카드	소속직원 등 6명
2021-11-02	행사참여 직원 격려	영산휴게소	19,500	카드	소속직원 등 3명
2021-11-02	시설사업장 관계자 간담회	미당	377,000	카드	관계자 등 12명
2021-11-03	대회 참석 관계자 격려	청정	204,000	제로페이	관계자 등 7명
2021-11-03	수능대비 방역점검 업무 추진 직원 격려	북부식육침식당	162,000	카드	소속직원 등 6명
2021-11-04	토론회 추진 직원 격려	빅푸부대찌개거창점	110,000	제로페이	소속직원 등 5명
2021-11-04	기부금 추진 직원 격려	거기딤섬종화요리	250,000	카드	소속직원 등 9명
2021-11-05	지역 홍보 특산물 구입	(주)누리아이	465,000	카드	관계자 등 50명
2021-11-05	경조사비 지급	성*용	50,000	현금	성*용
2021-11-05	개장식 참석 관계자 격려	가조 한우곰탕	403,000	제로페이	관계자 등 12명
2021-11-05	개장식 행사참여 직원 격려	거창축산업협동조합	320,000	카드	소속직원 등 11명
2021-11-08	대민업무 추진 직원 격려	송학가든	185,000	제로페이	소속직원 등 10명
2021-11-08	군정협조 관계자 간담회	생각나회초밥	480,000	카드	관계자 등 12명
2021-11-10	위촉직 준비 직원 격려	중전복집	137,000	제로페이	소속직원 등 10명
2021-11-10	유관기관 관계자 격려	거창축산업협동조합	460,000	카드	관계자 등 12명
2021-11-11	경조사비 지급	문*준	50,000	현금	문*준
2021-11-11	착공식 행사참여 직원 격려	위양간구시정육	232,000	제로페이	소속직원 등 10명
2021-11-11	업무협조 유관기관 관계자 간담회	거창축산업협동조합	413,700	카드	관계자 등 12명
2021-11-12	군정 협조자 간담회	불당산장	450,000	카드	관계자 등 12명
2021-11-12	행사참여 수행 직원 격려	거창축산업협동조합	145,200	카드	소속직원 등 5명
2021-11-15	게이트볼대회 준비 직원 격려	오두막집	80,000	제로페이	소속직원 등 10명

8 사회문화단체 보조금 지원

『**함께하는 세상**』은 시민문화단체가 지원금으로부터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민문화단체 보조금이 어떤 근거로 지원 되는지를 파악하고하였으나 각 단체의 지원금은 과별로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보를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필요하면 해당 과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사회문화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지원하는지 알 수 없다. 사회문화단체의 보조금 지급은 과별로 다르기 때문에 해당 과별로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알 수 있다.

군청 홈페이지 > 행정정보 > 군정정보 > 예산공개 참조를 하거나 각 과로 문의해서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단체마다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근거를 찾기 어려움.

지원금을 정한다고 해도 군에서 얼마든지 지원을 추가 지원이나 중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고 봄.



9

함께하는거창TV

■ 2021년 함께하는거창이 제작한 유튜브

- 거창국제연극제 무엇인 문제이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 거창군 공무원 땅투기 전수조사 관련 뉴스
- 거창군 공무원 땅투기 전수조사 현수막
- 거창군북합교육센터 건립사업 군민 의견수렴 4월 중 실시
- 거창주변 벚꽃구경 이번 주말에 하세요
- 세월호 7주기 거창군민 촛불 피케팅민주광장 거창416연대
- 세월호 7주기 거창군민 촛불 문화제 안내 영상
- 세월호 7주기 거창416연대 촛불 문화제 현장
- 거창군 공무원 땅투기 전수조사 중간발표 전 뉴스
- 거창군 JC 회원대회 행사비로 5천만원 편성
-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경상남도 감사요청 관련 소식 및 향후 방향
- 거창군 체육시설사업소 직장내 성희롱 사건 관련소식
- 거창군 공직자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 결과 브리핑
- 주민편익사업비와 포괄사업비 무엇이 다른가?
- 거창군 체육시설사업소 직장내 성희롱 사건 징계 뉴스
- 미얀마 민주화 운동 지지 선언문

『함께하는거창』 이종성 사무국장에 의해 16개의 유튜브가 제작되었으나, ‘미얀마 민주화 운동 지지 선언문(Democracy in Myanmar will surely win)’만 남기고 모두 퀄리티 부족으로 판단되어 삭제되었다.

‘Democracy in Myanmar will surely win. 미얀마 민주화 운동 지지 선언문. Support for Myanmar’s democracy movement’란 제목으로 제작된 유튜브는 미얀마 민주화 운동지지 선언문을 기반으로 영어 내레이션과 한글과 영문 자막으로 제작되었다.



10 미얀마 민주화 시위

미얀마 민주화 시위에 대한 지지와 행동을 위해 『함께하는겨장』은 시민사회단체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시사단 논의 결과 거창 시사단은 일종의 ‘미얀마 민주화 시위 지지 버킷리스트’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 방법: 미얀마민주화 투쟁에 대한 지지의 글을 담은 창의적인 손피켓을 만들어 사진을 찍어 오픈채팅방에 올리거나 이메일로 보낸다.
- 내가 아는 지인 2명을 지명한다.
- 지명받은 사람은 같은 방법으로 지지의 글과 함께 사진을 찍어 올린다.
- 6월 한 달(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동안 진행한다.
- ‘함께 하는 거창’ 이종성 사무국장이 모아서 동영상으로 제작한다.
- 미얀마민주화시위 지지하는 단체에 보낸다. 또는 현지에 보낸다.
- 송성동 선생님을 시작으로 한다.

시사단은 결정을 하였으나 『함께하는겨장』 사무국장 외에 참여한 사람이 없어서 결국 『함께하는겨장』 단독으로 영상을 제작하기로 결정하였다. 유튜브 제작은 영상은 이종성 사무국장이 제작하고 영문 나레이션을 추가하였다.

■ 유튜브 제작 내용

우리는 미얀마 민주화운동을 지지한다.

미얀마 민주 시민들이여!

힘내라!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지만, 반드시 승리한다!

과거, 우리도 세계 지성인들의 말 한마디를 갈급했을 때가 있었다.

박정희 유신 독재 시대 고립무원의 처지에서 민주화 운동을 벌일 때 그랬다.

광주항쟁의 비극을 겪고 전두환 군사 독재에 진실이 압살당할 때 그랬다.

그때, 외국에서 들려오는 지원의 목소리가 큰 힘이 되었다.

미얀마 민주 시민들이여!

군부의 탄압에 맞서 싸우는 여러분의 용기를 지지한다.

우리가 비록 멀리 있으나 한 길에 있음을 알린다.

우리의 역사는 서로 닮았다.
 한국이 식민지를 겪었듯이 미얀마도 그랬고,
 한국인이 독립운동을 했듯이 미얀마인도 그랬고,
 한국이 독립했듯이 미얀마도 그랬고,
 한국이 군사 독재를 겪었듯이 미얀마도 그랬다.
 차이라면, 한국이 민주화를 달성했고,
 미얀마는 아직 군사 독재 아래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승리했듯이
 미얀마의 민주주의도 승리할 것이다.

꼭 이긴다는 말을 전한다.
 우리도 겪었고, 저항했고, 고통받았고, 죽었다.
 그러나 승리했다.
 일찍이 우리는 1960년 4월 혁명으로 이승만 독재를 타도했고,
 1980년 광주항쟁으로 저항했으며,
 1987년 6월 항쟁으로 승리했고,
 드디어 촛불 혁명으로 완성했다.

그 길은 험난했고,
 오래 걸렸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민주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 자식들에게 독재 정권을 물려주지 않았다는 자부심이 있다.
 미얀마에도 그런 날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우리의 경험으로 안다.

미얀마 민주 시민들이여!
 힘내라!
 미얀마의 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함께하는 거창

We support the pro-democracy movement in Myanmar.

Dear people in Myanmar!

You can do it!

Democracy is built on bloodshed but it will win in the end!

We Koreans were once desperate for supportive words from the

world's intellectuals.

When we were fighting for democracy under Park Chung-hee's dictatorship,

When we were oppressed by Chun Do-hwan's military dictatorship during Gwangju uprising,

At that time, the voice of support from abroad gave us strength.

Democratic citizens in Myanmar!

We support your courage to fight against military oppression.

Remember that we followed the same path.

Our history is similar.

Korea experienced colonization; as did Myanmar.

Korea carried on its independence movement; as did Myanmar.

Korea became independent; as did Myanmar.

Korea suffered military dictatorship; as did Myanmar.

The only difference is that Korea has now achieved democracy.

Myanmar is still under military dictatorship.

But just as Korean democracy won,

Myanmar's democracy will win too.

We are certain you must win.

We went through pain, resisted, suffered, and many died.

But we won.

We overthrew Rhee Syngman's dictatorship with the April Revolution in 1960.

We resisted during the 1980 Gwangju Uprising.

We won the victory with the June uprising in 1987.

Finally, we finished with the Candlelight Revolution.

The road was rough.

It took a long time.

But now we live in a democratic country.

We are proud that we did not hand down the dictatorship to our children.

The victory day is not far away in Myanmar.

We know from our experience.

Dear democratic people in Myrmar!
 You can do it!
 You will achieve democracy in Myanmar.

Geochang Together in Korea



11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거창군이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본 계약은 계약금이 18억 원인 만큼 공고를 통해 계약자를 선정해야 하지만 이를 어겼고, 또 동의안을 60일 전에 군의회에 제출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수의계약으로 재위탁을 감행한 것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문제점 조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그에 따라 『암게이닝거창』은 최정환 부의장과 논의한 결과 최정환 부의장은 현재 화성건설 부가세 신고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부가세 신고 확인 후에 조치에 대해 논의하자고 말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거창군의회는 거창군이 ‘60일 전에 동의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한달(?)도 남지 않은 시간에 제출된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통과시켰음.

2020년 12월 31일 계약이 종료되는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은 1년 예산이 18억 원이 넘기 때문에 60일 전(10월 31일)까지 거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재운)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거창군은 이를 어겼다. 또 계약금이 18억 원인 만큼 공고를 통해 계약자를 선정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인 환경시설관리(주)와 화성 건설(주)에 수의계약으로 재위탁하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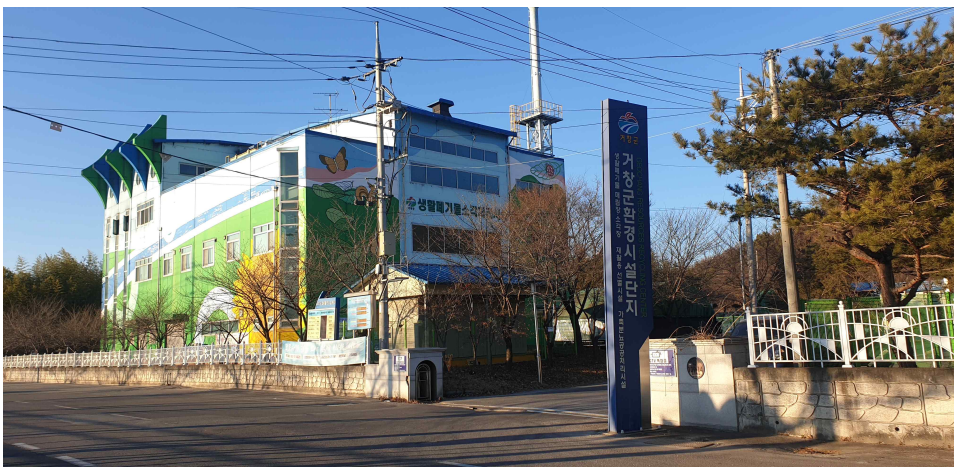
거창군의회 산건위는 12월 9일 회의에서 폐기물 관리법 제62조(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와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3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거창군 생활폐기물소각시설은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139-7에 위치하고 있으며, 열분해 가스화 방식으로 하루 30톤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현재 운영업체는 환경시설관리(주)와 화성종합건설(주)가 공동 수급하고 있으며, 관리 인력은 18명,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이다. 계약을 갱신할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다.

무소속 심재수 거창군의회 의원은 “다른 과에서도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아

위탁 승인을 부결시켰다.”라면서 “1년 예산이 18억 되는데 수의계약을 체결하나?”라고 물었다.

국민의힘 이흥희 거창군의회 의원도 “규정대로 하지 않았는데, 이를 알고도 의원들이 동의안을 승인해주면 ‘알고도 묵인해주는’ 것 밖에 안된다. 두 달 뒤 재심의해서 입찰하고 다시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라면서 “연간 18억 원이 드는데도 그냥 수의계약을 주자는 것을 어떻게 동의해주나?”라고 따져 물었다.



12 한국승강기대학교 이사장 비리

한국승강기대학교 김천영 이사장의 학교법인에 불법 매도 등의 비리와 교육부의 감사 지적에도 법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사직 선임 취소를 주장하는 노조 집회가 있었다. 『**함께하는거창**』은 성명서를 내고 동참했다.

10월 13일 12시 7시, 대학 정문에서 노조 집회.

■ 사건 개요

1. 김천영은 한국승강기대학의 총장 겸 이사로 있던 2019년 3월 실제로는 자기 소유 부동산인 경보프라자 제4층 제402호 와 제403호를 학교법인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매매가 1,140,200,000원)
2. 김천영은 법인이 대금의 99%를 지급하도록 했고, 1% 잔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자신들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상황을 만들어 2019년 6월코리아신탁 주식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 코리아신탁 주식회사로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방법으로 이중 매매함
3. 김천영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학교법인은 1,130,000,000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상황
4. 이러한 법인 이사장의 배임행위로 법인은 대학에 지원해야할 법정전입금도 3년간 미납했으며, 대학은 이 전입금 대신 학생들 등록금으로 마련된 교비로 충당했음
5. 따라서 그 피해는 10년간 임금동결 된 교직원의 피해로, 학생 복지 및교육 투자 재원의 감소로 귀결된 것이므로 극악한 반사회적 범죄임.

■ 요구사항

- 김천영 이사장은 대학 정상화를 방해하지 말고 즉각 퇴진하라
- 교육부는 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김천영 이사장의 이사직 선임을 취소하라
- 교육부는 위계를 써서 당연직 폴리텍 이사를 사임시키고 선임한 권영민이사를즉각 선임 취소하라
- 김천영 이사장을 영입하여 오늘의 사태를 야기했으며 김천영 이사장의 범법행위에 공동 책임이 있는 이환철 감사는 즉각 퇴진하라
- 이사장의 수족 노릇을 하며 대학교 행정에는 기여하지 않고 임금을 축내는 강정부 전 행정처장을 즉각 해고하라

< 『함께하는거창』 성명서 첨부 >

13 동산마을 환경정비

거창군은 폐축사의 방치로 환경이 매우 열악한 동산마을을 정비한다고 발표하면서 거창시민단체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함께하는거창』은 동산마을 정비와 정비 후의 환경에 대해 시민단체와 의견을 나누고 있다.

거창군은 동산마을 환경정비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거창군은 『함께하는거창』 사무국을 방문하여, 푸른산내들과 『함께하는거창』에 협조를 요청했다.

동산마을 정비사업은 방치된 폐축사 매도 및 슬레이트 지붕 철거 작업 등 약 200~300억이 예상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대해 『함께하는거창』은 동산마을이 매우 낙후되어있는 만큼 긍정적 검토를 하고 있으며 거창시민사회단체는 아래와 같은 안이 있었다.

시사단 카톡방에서 성산마을과 같은 부동산 투기 세력 개입 우려.

운동영 농민회 대표 : 농지복원, 태양광단지 추천.

푸른산내들 : 생태숲 추천.



14 수승대와 수송대

문화재청이 거창 수승대(搜勝臺)의 명칭을 거창 수송대(愁送臺)로 변경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함께하는 거창』이 문화재청에 문의를 해 본 결과 거창군측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서 검토 중이라는 답변이 왔다.

수승대라는 이름의 역사는 아래와 같다.

퇴계 이황 선생이 1543년, 마리면 영승마을에서 열린 장인어른의 회갑연에 왔다가 ‘기제수승대(寄題搜勝臺)’라는 개명시를 남김으로써 수송대라는 명칭을 수승대로 변경하게 되었다.

퇴계문집의 ‘기제수승대’에는 ‘안음 고현에 바위가 물가에 임해 있는데, 속명이 수송대이고 천석이 너무 아름답다. 내 가고자 했으나 겨를이 없어 가보지 못해 한이 된다. 또한 그 이름이 아름답지 못해 싫어 수승으로 바꾸자 하니, 여러 사람들이 모두 옳게 여기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퇴계 이황이 남긴 수승(搜勝)이라는 명칭에서 빼어날 수(秀)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찾을 수 : 搜’를 썼다. 거창박물관 구본용 학예사에 의하면 “이는 퇴계 선생이 수송대를 직접 방문하지는 못했으나, 반드시 다시 찾겠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15 거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식

■ 거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발족(진행 중)

거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규약(안)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거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로 하며, 약칭은 '거창시민연대'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의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는다.

1. 우리사회와 지역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회개혁을 추진한다.
2.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과제별, 부문별, 지역별 연대 네트워크의 구성을 지원한다.
3. 시민사회와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한다.

제3조(사업) 본 회의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사회개혁을 위한 연대활동
2. 시민사회 단체들 간의 연대활동
3.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기타 제2조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2장 회원

제4조(회원)

1.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단체는 회원이 될 수 있다.
2. 가입을 원하는 단체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회원단체 추천을 받아 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한다.
3. 가입단체는 비정부, 비영리, 비정당이어야 한다.
4. 기타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5조(권리와 의무)

1. 회원단체는 본 회의 의사결정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2. 회원단체는 본 회의 규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와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

를 갖는다.

제6조(징계)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대표자회의의 결의로 징계할 수 있다.

1. 제4조 3항의 원칙을 어긴 경우
2. 제5조 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본 회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킨 경우
4. 징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장 조직 및 운영

제7조(총회) 본 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총회를 두며, 그 구성과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연 1회의 정기총회와 필요시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4분기에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임원회 혹은 회원단체 3분의 1 이상의 요청에 의해 소집할 수 있다.
4. 총회는 회원단체별 3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5.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총회는 20일 전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공지한다.
7. 총회 의장은 공동대표 중에 호선한다.

제8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공동대표 및 집행위원장, 감사의 선출
2. 규약의 제정과 개정
3. 사업계획과 예산의 의결
4.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5. 기타 본 회 활동과 관련한 주요사항

제9조(공동대표 및 감사)

1. 전국규모의 단체와 지역 및 부문을 고려하여 약간 명의 공동대표를 선출하고, 상임대표 1인을 둘 수 있다.
2. 감사는 2인으로 구성하고, 사업 및 재정 업무를 감사한다. 제10조(임원회의) 본 회의는 공동대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으로 임원회를 구성하고 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2. 대표자회의에서 위임한 사항
 3. 본 회의 주요한 입장표명 (사후 대표자회의에서 추인)

제11조(대표자회의) 대표자회의의 구성과 운영방식은 다음과 같다.

1. 대표자회의는 회원단체별 각 1인으로 구성하며, 집행위원장과 사무국장은 당연직 회원이 된다.
2. 대표자회의는 분기별 1회의 정기회의와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3. 임시대표자회의는 공동대표 혹은 한 단체 이상의 요청에 의해 소집할 수 있다.
4. 대표자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대표자회의 의결사항) 대표자회의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2. 일상적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제반 사항
3. 특별기구의 구성

제13조(집행위원회) 대표자회의의 업무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14조(임원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사무국)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은 대표자회의에서 선임한다.

제16조(특별기구) 본 회의 특화된 활동을 위하여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제4장 재 정

제17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원단체의 회비(2만원 또는 1만원)와 분담 금,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부칙

제1조(준용규정) 본 규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내규 및 준칙,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2조(효력발생) 본 규약은 총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3조(징계절차) 총회에서 의결한다.

■ 함께하는거창 의견

『**함께하는거창**』은 본(거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규약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한다.

1. 제6조 ‘징계’ 조항은 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유는, 각 단체는 단체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각 단체의 성향에 따라 자유가 보장 되어야 한

- 다. 따라서 어떤 단체가 타 단체의 도덕성을 판단하고 징계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다.
2. ‘거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대표는 각 단체의 대표 중에 한 사람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유는, 각 단체의 대표를 두고 ‘거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를 별도로 둔다면 대표자들의 의견 조율이 쉽지 않고 특별히 유익한 의미가 없어 보인다.
 3. 거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조직 구성을 간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 대표자 회의를 통한 대표자 1명 선출
 - 간사 1명
 - 총무 1명

이상은 『**암게아는거창**』 운영위 논의 내용을 사무국장이 간략하게 요약하였다.

■ 거창 여성회 의견

여성회 : 다소 미온적(지지부진 되지 않을까), 운영위를 통과해야 가능하다.

거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활동

■ 3월 9일(화) 오후 6시 30분 광안리 모임

함께하는거창, YMCA, 여성회, 여성농민회, 전교조, 농민회, 푸른산내들, 사사세, 언소주, 민예총 참석

교도소부지와 주변 토지 및 도로 전수조사

기자회견문 작성(송성동, 윤동영, 정광희)

장소 : 군청 브리핑룸

기자회견 : 3월 11일 10시 예정

낭독 : 신용균 대표(참석이 불가능할 경우 다른 사람)

모두발언 : 여성회 회장(농민이 농지를 구입 해야 한다...)(미정)

거창군청 문제 공무원 있음이 분명하다.

전수조사는 2008년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

■ 기자회견 무산

3월 11일 기자회견이 연기되어 3월 15일 오후 2시 30분 거창군청 정문에서 거창교도소부지 전수조사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였으나, 푸른산내들이 운영위의 반대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자, YMAC에서도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취소되었다. 회견문은 운영위 카톡방에 공유됨되었다.

■ 기자회견 발표

3월 18일 11시 30분 거창농민회, 거창여성농민회 “거창은 농지투기의 청정지역인가?” 주제 기자회견을 하였다.

3월 19일 거창군청 “거창군, 전 공무원 대상 부동산투기 의혹 전수조사 나서” 보도자료 발표(보도자료 별첨)를 하였다.

3월 22일 시사단 논평을 하였다.(논평 별첨)

3월 23일 오후 3시 군수 면담을 하였다.

군수면담 주요 내용은 제2장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에서 살펴 보았다.

■ 10월 7일(목) 오후 7시 광안리 모임

참여단체: 12. 참석자:13명

●거창군 복합교육센터 정리●

1. 군수면담 요청
2. 군수 면담 전 사전모임
3. 가급적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를 확보해서 날짜 투표하기로..
4. 홍보: 한들 신문(시사단활동 내용 실기)

● 군에 제출할 제안서 내용

: 군수 면담이 잡히면 현재 진행되는 계획은 재검토 구하고 무조건 반대보다는 미래 거창에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한다.

● 군수 면담 결과에 따라 대응 방법이나 수위를 정한다.

■ 교육발전협의체 간담회 개최

2021년 10월 13일 오후3시 청소년수련관 3층 회의실

교육발전협의체를 교육발전협의회로 변경.

제2조(설치 및 기능) ①거창군 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설치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의 협의·조정 및 자문을 한다.

제3조(구성)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에서, 25명으로 변경(주민공모선정 3명 포함)

기타 검토 후 변경

최정환 의원 : 안민석 의원 방문 때 500억 지원 요청, 교육청 지원 요청 등 추진 중.

■ 11월 4일(목) 오후 7시 광안리 모임

참여단체: 『함께하는거창』, 전교조, 푸른산내들, 농민회, 여성농민회, YMCA, 사람사는세상

거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 의견제출

『함께하는거창』은 거창군이 약 1천억 원을 투자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거창군복합교육센터’ 건립사업 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거창군이 진정으로 거창의 교육 발전을 원한다면, ‘거창군복합교육센터’ 건립 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교육전문가들을 위주로 장기적인 거창교육발전을 모색할 ‘교육도시 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도시 거창의 청사진을 만들고 그 청사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현재 거창교육발전을 위해 거창군이 추진 중인 ‘거창군복합교육센터 건립사업’은 주객이 전도되었고 앞뒤 순서가 뒤바뀌었다. 거창군은 ‘거창군복합교육센터 건립 타당성’을 조사하기 전에 거창군의 교육 발전을 위한 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군민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도시 거창의 청사진을 제시했어야 한다. 그러나 거창군은 ‘거창군복합교육센터 건립 계획’을 먼저 세워두고 그 이후에 거창교육발전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는 거창군이 대형 건축물을 세우겠다는 계획에 교육을 이용하고 있는 것일 뿐, 거창의 교육 발전과 무관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함께하는거창』은 지금이라도 거창군이 진정으로 거창의 교육 발전을 원한다면 ‘거창군복합교육센터 건립사업’을 완전 백지화하고, 가장 먼저 거창의 미래 교육 발전의 방향을 모색할 ‘교육도시 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율적 논의를 통해 교육도시 거창의 청사진을 만든 후에 그 청사진에 따라 1천억을 투자하는 것이 진정으로 거창군의 교육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거창군수는 거창복합교육센터 건립 계획을 전면 취소해야 한다.

하나, 거창군수는 ‘교육도시 기획위원회’ 구성원을 주민공모선정을 통해 다양한 교육전문가로 최소 50명으로 구성해야 한다.

하나, 거창군은 ‘교육도시 기획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교육도시 거창의 청사진에 따라 1천억을 투자해야 한다.

- 『함께하는거창』 -

■ 거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토론

거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시간 동안 토론 결과,

전 단체의 공통 의견 : 거창군복합교육센터 건립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함.

전교조, 『함께하는거창』, YMCA가 공동 의견서를 작성.

전교조 송성동 대표 의견서 작성.

『함께하는거창』, YMCA 검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의견서 첨부>



16 세월호 7주기 추모 행사

거창군민 풋볼 피켓팅

일시 : 2021년 4월 16일 6~7시

장소 : 거창군청 로타리 민주광장

『함께하는거창』 : 웹자보, 홍보동영상, 거창416연대 풋볼 문화제 현장 광경 제작

세월호 7주기 거창군민 풋볼문화제 사무국장단 평가회의

(4월26일 저녁7시, 장소 : 아날)

배경숙(여성농민회) 작성

참가단체 : YMCA, 거창여성회, 농민회, 『함께하는거창』, 여성농민회, 푸른산내들(서면으로 제출), 음향담당 임영태님

[평가회의는 준비 과정, 당일 7주기 문화제 형식 및 내용, 마무리 등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7주기 추모제를 진행할 것에 대한 마음을 모으고, 이것을 바탕으로 사무국장단 회의를 진행하여 내용과 형식을 논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 추모제를 진행하여 큰 의미가 있었다.
- 당일 거창지역 코로나확진 환자 발생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여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에도 추모제를 진행한 의의와 보람이 컸다.
- 비록 세월호 7주기라는 추모제로 모이긴 했지만 아주 오랜만에 광장에 모여 인사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이야기 나누는 자리여서 좋았다.
- 우리 지역의 추모제에 알맞은 웹자보와 동영상이 사전에 제작되어서 각 단체별로 홍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 YMCA 소속 청소년의 피켓팅이 1시간 앞서 진행되어 민주광장을 중심으로 추모제의 의미를 살리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 문화제와 피켓 선전전을 함께 진행하여 거창군민과 함께 하는 7주기의 의미를 더 살릴 수 있었고, 특히 손피켓은 각자의 구호로 만들 수 있어서 더욱 의의가 있었다.
- 민주광장 맞은편 도로쪽에도 현수막 선전전을 하여 지나가는 거창군민들에게도 잘 알릴 수 있었다.
- 4월 16일이 임박하여 준비한 까닭에 당일 추모제 이외에 다른 연속적인 활동이나 흐름을 만들지 못해 아쉬웠다.

- 당일 추모제가 이른 시간에 진행되어 영상 상영을 충분히 하지 못했고, 특히 7주기가 오기까지 어떤 부분이 제대로 수사, 조사되지 않고 있는지 알려주는 영상을 상영하지 못해 아쉬웠다.
- 항상 행사나 집회를 준비할 때 집기류 정리, 쓰레기 정리 등 집회장 마무리를 어떻게 할것인지도 꼼꼼하게 챙겨서 몇사람만 고생을 하는 경우는 없도록 하자.
- 김성욱님(고 김초원선생님 아버지)이 416 전에 딸에게 보내는 편지를 주셨는데, 미처 챙기지 못해 7주기 추모회 진행순서에 넣지 못해 미안했다.
- 당일 모인 후원금 등은 차후 시사단 대표자회의에서 416연대 가입의결후 416연대에 전달하도록 하자



거창416연대

다시, 촛불! 다시, 세월호!

“거창에서도 함께합니다”

검찰 특별수사단 수사결과 및 법원 판결 규탄
문재인대통령 진상규명 약속이행 응답 촉구

세월호 7주기 거창로터리 촛불 피켓팅



문재인 정부 진상규명 촉구

일시 : 2021.4.16(금) 오후 6시-7시
장소 : 거창 로터리 민주광장
 ※ 본 시위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합니다.



18 국민총행복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

국민총행복과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 추진계획(안)

10월 6일 저녁 7시, 거창하천환경센터에서 “국민총행복과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을 추진하고 있는 우태영(장문화협회 부회장(거창 수송대발효마을 대표))씨의 주선으로 거창시민단체 몇 분들과 모임을 가졌다.

“국민총행복과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은 도올 김용옥, 박진도 충남대 명예교수 등이 전국을 돌면서 행진 & 토크쇼 등을 한다고 한다.

경남은 진주시, 창원시, 거창군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된다고 한다. 거창군의 방문 날짜는 12월 1일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행진 & 토크쇼 관람 등을 위해 거창군의 시민사회단체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분담금 100,000원 정도도 요청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카톡방에 첨부파일로 드렸다.

2021년 10월 7일 7시 광안리에서 시사단 모임.

이성호 집행위원장 방문 브리핑.

농민회, 전교조 등 많은 시민단체 동참 의사.

10월 29일(금요일) 거창하천환경센터에서 거창시민사회단체 회의.

국민총행복과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 추진 집행위원장 이성호님께서 11월 둘째 주 『함께하는거창』와 면담에서 거창군이 개벽대행진의 방문을 요청할 경우 도올TV 측에 분담금 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통보를 받았고, 방문을 요청할 것인지에 대해 문의를 해왔다. 이에 대해 함께하는 거창은 시사단의 의견에 따르겠지만 함께하는거창은 일단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시사단의 논의 결과 결국 무산되었다.



[자료]

성명서

거창군수 구인모의 군 재정 낭비를 강력히 비판한다!

거창국제연극제 사태는 군민을 낮부끄럽게 하였다.

무능하고 후안무치한 거창군수는 더는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1. 우리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거창국제연극제의 기형적인 운영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왔다. 그 핵심은 국제연극제에 대한 거창군의 책임 있는 재정 감사였다. 그러나 거창군은 우리의 제안에 아랑곳하지 않더니 결국 연극제를 파행에 이르게 하였다.
2. 우리는 거창군수가 거창국제연극제 측과 상표권 매입 계약을 맺었을 때, 그 부당성을 제기하고, 거창군수가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였다. 수백억 원의 국비, 도비, 군비 등 국가 재정을 투입한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이 소수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계약의 내용도 국제연극제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되었다. 그러나 거창군수는 이에 대해 한 마디의 사과도 없었고, 오히려 뻔뻔스러운 변명으로 일관하였다.
3. 계약이 연극제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된 이상, 협상의 결렬, 연극제 측의 소송 제기, 거창군의 패소는 예상된 결과였다. 지난 11월 25일, 거창군은 소송에서 패소해,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에 17억 3000만여 원과 소송비용의 90%를 지출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뜬금없는 상표권 구매라는 발상과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 거창군 재정 낭비로 귀결되었다. 거창군수 구인모의 잘못은 명백하다.
4. 우리는 거창군수가 이러한 사태를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보고 있었다. 오늘에야 거창군수는 항소를 포기하고 거창국제연극제 측에 10억 원을 지불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였다. 우리는 이 발표문에서 반성하는 기미나 책임지는 자세를 찾아볼 수 없었다. 책임이라고는 기껏 담당 공무원을 좌천, 전보시켰다는 것이 전부였으며, 정작 책임자인 거창군수는 변명으로 일관하였고, 특히 군 재정 10억여 원의 낭비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회피하였다.
5. 거창군수는 행정의 잘못과 군 재정 낭비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사람이라면, 잘못된 일이 있으면 부끄러움을 느끼며, 자신의 과오에 대해 사과하고, 어떻게든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다. 하물며 공직자 이랴! 우리는 무능력할 뿐만 아니라 후안무치한 거창군수 구인모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거창군수는 국제연극제 사태에 대해 군민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
 하나, 거창군수는 이 사태로 발생할 모든 거창군의 재정 낭비를 책임져라!
 하나,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거창군민의 강력한 저항이 있을 것이다.

2020년 12월 07일

답변서

『함께하는거창』 성명서에 대한 답변서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항상 군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극제 상표권 이전과 관련 군민들에게 많은 우려와 불편함을 끼친데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귀 단체의 성명서 요구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거창군수는 국제연극제 사태에 대해 군민에게 무릎꿇고 사과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창국제연극제는 1989년부터 시작된 30여년의 역사를 가진 거창군의 대표 축제입니다. 하지만, 연극제의 규모가 점점 커져갈수록 예산집행과정의 불투명, 단체 내분, 감사 등 어두운 이면이 생겨왔습니다.

군수 후보시절부터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연극제 정상화’를 공약으로 선정하였고, 민선 7기 출범 이후 수차례 업무협의 과정 등을 거쳤으나 의견차이로 합의가 결렬되어, 이후 연극제 정상화 마지막 대안으로 2018년 12월에 상표권을 군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상표권 이전 계약은 오로지 국제연극제를 정상개최한다는 목적이외에는 어떠

한 사항도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연극제 상표권 이전 관련 논란에 대해 '20. 12.7.(월) 대군민 담화문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재정 낭비를 책임져라'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9.5월 약정금 청구소송이 제기된 이후 우리군은 감정가 오류에 대한 주장 등 성실히 소송에 임하였습니다만, 지난 11월 '거창군은 집행위에 17억 35백여만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은 존중하나 군민들의 눈높이를 생각하면 받아들일 수만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하지 못하고 항소를 하였다면 금년 12월에 변호사 선임비, 집행행정에 필요한 공탁금, 이자부담 등 많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항이었고, 지금 시점이 연극제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봤을 때 최선의 실익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귀 단체에서는 연극제 상표권 10억원이라는 이전 금액에 대하여 재정낭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하여 심분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군의 최대 현안 과제를 빨리 종식시키고, 연극제를 개최하지 않아서 생기는 우리군의 추가 손실을 막는 것이 더 나은 해결책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연극제 정상개최를 통하여 주변 상가의 근심을 덜어드리고, 올해 개교한 연극고 학생들에게는 희망을, 그리고 수십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군민여러분들께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절한 조치를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치사항으로 당시 행정복지국장이 지난해 4월과 8월에 거창군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2차례 하였습니다. 그리고, '19년 7월 하반기 인사발표 보도자료'를 통해 군민들에게 실망과 우려를 안겨드린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당시 담당과장과 담당주사에 대하여 문책코자 좌천성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또한, 담당과장은 금년 2월에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할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이 문제로 아직 승진시키지 않고 있으며, 담당주사는 퇴직을 신청하였으며 금년 12월말에 조기 퇴직합니다.

또한, 지난 12월 7일에 대군민 담화문에서 그 간 상표권 이전 관련 사항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드렸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는, 상표권 이전에 대비하여 '거창군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따라 15명 내외의 「거창국제연극제 정상화 추진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통과 화합을 통해 국제연극제가 새롭게 재도약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력을 집중하여, 내년 여름에는 다함께 즐기는 빛나는 연극

제를 군민 여러분께 돌려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거창국제연극제의 갈등을 종식하고, 다가오는 새 해에는 모두가 상생의 길로 노력해야 하는 상황임을 고려하고 깊이 이해해 주시고 귀 단체에서도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향후에는 귀 단체에서 우려하는 사항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군민들의 의견을 더욱 귀담아 듣고 꼼꼼하게 군정을 챙겨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큰 거창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귀 단체의 무궁한 영광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감사요청

거창군의“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 계약”에 따른 거창군 행정의 예산낭비에 대한 경남도의 감사요청 민원

수 신 경상남도 감사관

참 조 감사관

(경유) 민원처리 총괄/문화·환경 등 보조금 분야 감사 계획수립 담당자

제 목 거창군의“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 계약”과 “그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따른 거창군 행정의 예산 낭비에 대한 경남도의 감사 요청 민원

1. 귀 귀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역시민단체인 ‘『함께하는거창』’은 관내 시민단체 및 문화예술단체들과 함께 2018년 12월 24일자로 거창군의 거창국제연극제 매입 계약에 대한 부당함과 그와 관련된 제반 사항의 부실함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제기합니다.

-아래-

하나. 참여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정신에 입각해 볼 때, 본 계약은 혈세를 들여 민간단체와 맺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정서와 여론을 우선 파악하고자 하는 일체의 민주적 절차에 입각한 행위가 전혀 없는, 구태 정치의 본보기입니다.

둘. 혈세로 커 온 축제브랜드를 또다시 혈세로 매입하고자하는 군 행정의 발상에

대해 아직도 공감하지 못하는 여론이 지배적이며, 공유경제적 가치를 담은 ‘거창’이라는 지역명을 개인이나 일개 단체에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도 납득이 안 됩니다. 국, 도, 군 재정을 들여 키워 낸 축제의 이름을 과연 개인이나 단체가 자신들의 전유물로 여기고 사고팔아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관점에서도 깊은 의문이 듭니다.

셋. 거창국제연극제는 1997년 12월부터 행정 및 재정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 사용에 대한 감사와 행정지도가 극심히 부실하여, 불과 10여 년 만인 2008년도에 총체적 부실'평가와 함께 보조금 정산 문제를 둘러싸고 계속적인 논란을 일으키며 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 대표가 실형(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이후로도 감사는 허술하고 방임되어 결국 오늘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에 우리는 보조금 정산에 대해 확실한 감사를 요청합니다.

넷.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집행위)와의 매매계약에 있어 거창군은 거창국제연극제를 키워오는데 들어간 군비와 도비 그리고 거창군민들의 참여와 노력에 대한 가치 평가를 완전히 배재하고, 스스로 집행위 측에 상한선도 없는 판매 금액을 정하게 하였으며, 자신들이 산정한 가격과 평균가격을 판매 금액으로 하는 정말 일반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특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어처구니없는 매입 조건을 제시하고도 계약 해약시에는 20배를 배상한다는 조항까지 넣어 거창군의 혈세를 낭비할 수 밖에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첨부 계약서 참조)

다섯. ‘거창국제연극제’상표권 등록일자는 2019년 10월 1일입니다. 그리고 거창군이 사단법인 와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 계약을 한 날짜는 2018년 12월 24일입니다. 이처럼 거창군은 ‘거창국제연극제’라는 상표권을 집행위가 취득하기도 전에 매입을 했습니다. 물론 거창군이 계약서에 상표권(등록번호 제 41-0199273호)라고 숫자를 표시했지만 이 상표권은 ‘거창국제연극제 KIFT’입니다. 다시 말해 계약서에는 거창국제연극제 KIFT’라는 문구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고, 마치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을 매입하는 것처럼 되어있습니다. 이는 사실을 왜곡한 계약입니다.

또한 집행위가 뒤늦게 출원한 ‘거창국제연극제’상표권은 2019년 05월 07일 출원공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거창군은 집행위의 상표권 취득에 이의를 제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직무태만이며 혈세를 낭비하게 한 공무원의 업무상의 배임입니다.

여섯. 거창군의 무소불위의 권력남용과 집행위의 비양심이 합쳐진 계약은 소송으로 이어졌으며, 결국 2020년 11월 13일 ‘거창군은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에 대해 17억3558만원을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 측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

왔습니다.

거창군은 소송에 승소를 위하여, 군비를 아끼기 위하여, 군비, 도비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이나 거창군민들의 참여에 대한 평가금액을 산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창군민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법적 대응을 했어야 하지만 그들은 전혀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일곱. 거창군은 패소 이후 집행위와 10억원으로 조정 합의하였지만 거창군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으며, 새롭게 4자협의체(거창군1명, 군의회1명, 집행위1명, 시민단체1명)를 구성하여 합의를 시도하고 있지만 그 합의금이 얼마이든지 간에 거창군의 독단적이고 비상식적인 특혜성 계약은 명명백백하게 감사 되어야 하고 처벌 되어야 합니다.

여덟. 계약서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곳곳에서 업무상의 배임 혐의가 명백하게 들어납니다.

배임은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법해석을 근거로 거창군의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밖에 없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무원 및 최종 결재권자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홉. 이 계약의 진행과정을 보면, 시민 여론을 청취하고 정서를 파악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은 채 행정의 독단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의의에 크게 벗어나는 일입니다.

열. 우리 단체는 지금 경상남도에 감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논란의 중심에 있는 기관인 거창군 감사실로 이송시키는 일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 건은 절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본 건은 거창군수와 직접적인 사건이고 거창군수와 거창군수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닿고 있는 담당 공무원을 감사하는 것이므로 본 감사가 거창군으로 이송된다면 그것은 우리 단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부디 이런 일이 현실이 되어 막대한 에너지가 소비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3. 이상, 위와 같은 이유로 거창군수 및 담당 공무원이 참여지방자치의 가치를 크게 손상시키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불평등 계약에 대해 성역 없는 감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민원을 경상남도 감사관실에 제기 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답변서

1. 거창군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경상남도 감사요청

경상남도 감사관실

수신 거창군 거창읍 공수들6길 8-8, 1F 함께 하는 거창 대표 신용균 귀하
(경유)

제목 민원(1BA-2101-0129084) 처리결과 안내

1. 귀 단체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2. 귀 단체에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거창군이 (사)거창국제연극집행위원회와 | 체결한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 계약의 부당함과, 이와 관련한 거창군 예산

낭비에 대한 도의 감사를 요청한 건과 관련하여,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특허법」 · 「실용신안법」 ·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은 공유재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 '18. 12. 24. 매매 계약을 체결한 상표권(KIFT 거창국제연극제) 등 집행위로부터 '21. 2. 1. 이전 받은 상표권(4건) 모두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권으로

공유재산으로 취득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다만, 거창군에서 거창국제연극제의 정상화를 위해 상표권의 이전을 추진하면서,

「지방재정법」 및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회 사전 동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나,

- 개인이나 기관의 이익이 아닌 지역민의 요구(민선 7기 공약사항) 등에 따라 지역

대표축제인 거창국제연극제의 정상화를 위해 상표권 이전을 추진하게 된 점

- 계약 미이행으로 1심 판결에 패소하여 17억여원 지급 판결을 받았으나, 다양한

노력으로 소송을 취하시키고, 판결 금액 절반에 못 미치는 8억원에 연극제 상표권 전부를 이전 받은 점

-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지만, 군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최종 2021년

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승인받아 상표권 이전을 완료한 점 등을 감안하여,
☞ 관련자 2명에 대하여는 《훈계》 조치하고, 거창군에 대하여는 《주의》
조치하였
음을 알려드립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남도 감사위원회
(8055-211-2183)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2021년 2월 15일

보도자료

거창군, 전 공무원 대상 부동산투기 의혹 전수조사 나서
제공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공보담당 | 박혜진 1940-3041
관련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 | 최재환 1940-3061

해당사업 관계공무원과 6급 이상 공무원은 배우자와 직계비속까지 포함 자체
시행한 개발사업 7곳과 민자사업 대상지, 10년 전까지 조사

거창군은 3기 신도시에 대한 LH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전 국민으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투기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번 전수조사는 '경상남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전수조사 권고' 및
군 자체 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항으로 거창군에서는 전국적으로 확산된 부
동산 투기 의혹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농공단지 등 개발사업과 관련해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이다.

조사대상 개발지는 승강기전문농공단지, 거열산성진입도로 등 군에서 자체 시행한 7곳의 개발사업과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송정택지지구 개발사업까지 포함할 계획이며, 현시점부터 10년 전까지 부동산 거래내역이다.

이번 조사는 오는 4월 23일까지 실시할 예정으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6급 이상 공무원과 해당사업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할 예정으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제출받아 조사할 계획이다.

군은 기획예산담당관을 단장으로 7개부서 10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4월 2일까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확보할 계획이며, 이를 토대로 4월 3일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최근 LH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와 관련하여 군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엄격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어떤 사소한 의혹이라도 명명백백하게 밝혀낼 것"이라며, "조사과정에서 의심되는 부분이 확인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수사의뢰 및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여 청렴한 공직자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1. 3. 19

2021. 5. 25.(화) 11:00 / 2층 상황실

거창군 공직자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 결과 브리핑

- **최근 LH임직원의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하여** 관내에서 시행된 공익사업 11곳에 대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 투기여부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 **조사기간은** 3월 22일부터 5월 18일까지 56일간이고,
- **조사대상은** 전 공무원이고, 6급 이상 공무원과 해당업무 관계 자의 가족까지 포함하여 전체 1,978명입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자 발적인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징구하였으며 그 결과 1,977명이 동의하였습니다.
- » 공무원 : 771명(100%), 가족 : 1,206명(99.9%) * 동의 불가자 1명(이혼소송)

○ 조사대상 공익사업은

- 거창구치소 건립사업, 거창지원·지청 이전부지 조성사업, 성산마을 이주단지 조성사업, 거열산성 진입도로 개설사업*
- 거창구치소 건립사업, 거창지원·지청 이전부지 조성사업, 성산마을 이주단지 조성사업, 거열산성 진입도로 개설사업*
 - * 거열산성진입도로 개설사업에 법조타운 진입도로가 포함
-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승강기 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 다목적체육관 조성사업, 빼재산립레포츠파크 조성사업, 항노화힐링랜드 조성사업, 송정택지개발사업으로 11개사업 1,237필지가 되겠습니다.
- 조사 대상사업 확정과정에서 시민단체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거창 구치소 건립사업과 성산마을 이주단지 조성사업을 포함하게 된 사항 이며,
- 이 밖에도 조사과정에서 남부우회도로 개설사업, 대우아파트 인근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운정~절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함양~울산고속도로 개설사업도 추가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 **조사범위**로는 앞서 밝힌 공익사업에 대해 지구지정일을 고려하여 2009년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토지거래내역이었습니다.
- **조사방법**은
 - 취득세 납부 자료중 ‘매매’를 원인으로 한 거래내역을 활용하여,
 - 조사대상자의 토지 소유 및 거래내역을 확인 한 후 공익사업과 대조하여 공익사업에 편입된 공무원의 토지거래내역을 추출하였으며,
 - 추출된 대상자에 대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재산상의 이익이 있었는지 등 위법행위 여부를 정밀조사 하였습니다.
- 이를 위해 우리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11명 규모의 특별 조사단을 구성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 조사과정에 제기된 군민들의 의혹 해소와 함께 자체조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익명 가능한 공익신고센터를 운영하였으며, 내부공무원에 대해서는 자진신고를 독려했습니다.
 - 그 결과 공무원의 자진신고는 4건 있었으나,
 - 공익신고센터를 통한 공익신고는 없었습니다.

□ 그러면, 조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사대상자 1,977명의 취득세자료 확인결과 조사목적과 무관한 상속·증여 등을 제외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한 거래내역이 1,254건이었으며, 이중 공익사업에 편입된 거래내역 9건을 확인하였습니다.
- 9건의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5명, 그 가족 4명을 확인하였으며, 이들의 거래에 대해서는 취득경위, 내부정보 이용, 재산상의 이익 발생 여부 등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위 9건에 거래에 대해 사업별로 살펴보면,
 - 성산마을이주단지에 공무원 2명
 - 거창지원·지청 이전부지 조성사업에 공무원 1명
 - 거열산성 진입도로에 공무원가족 1명
 - 산업단지 연결도로에 공무원 1명*
 - * 산업단지연결도로 사업중 소하천 편입된 사항임
 - 남부우회도로 개설사업에 공무원 2명, 공무원가족 1명
 - 대우아파트 인근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공무원가족 1명
 - 함양~울산간고속도로 사업에 공무원가족 1명이 되었습니다.
 - » 공무원 5명(1명 중복) 공무원가족 4명
- 이 중 성산마을이주단지 조성사업에 부동산을 취득한 공무원 2명은 부부공무원으로서, 법조타운 업무 최초 수행전에 매입한 사항이며 관련 업무에 종사한 이력이 없어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심 정황은 아니라고 결정하였습니다.
- 거창지원·지청 이전부지 조성사업, 거열산성 진입도로 개설사업, 남부우회도로 개설사업, 대우아파트 인근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부동산을 취득한 공무원 3명과 공무원가족 3명의 거래에 대해서는
 - 사업고시 등 개발정보가 외부에 공표된 이후 매입된 사항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산업단지 연결도로에 부동산을 취득한 공무원 1명은 도로확장과정에서 소하천에 일부 편입된 사항으로 도로개설구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전체 편입면적이 19㎡로서 100만원 미만의 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이 없고, 개설된 도로에 접하지도 않아 장래적 이익 또한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함양~울산고속도로에 부동산을 취득한 공무원가족 1명에 대해서는 언론보도를 통하여 인지한 사항으로 조사결과 ‘경매’를 통한 부동산을 취득하여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함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 이 상 9건의 거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논평

<거창군의 투기 전수조사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논평>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개발 사전정보를 이용한 공무원 및 공사 직원들의 부동산(농지)투기에 대해서 전국민적인 분노가 들끓고 있으며 하루가 멀다 하고 투기 사실이 터져 나오고 있다. 코로나19로 하루를 버티기 힘든 이때에 대다수의 국민들은 분노를 너머 허탈감마저 들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거창군은 공무원들에 대해서 거창의 개발사업에 대한 투기 여부를 전수조사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먼저 거창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시사단)는 거창군의 즉각적인 조치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전하며 거창군 특별조사단의 역할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이에 공무원들은 조사가 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동의 등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

한편 거창군이 발표한 조사계획에는 몇가지 맹점이 보인다.

첫째, 지역에서 진행된 국책사업이 빠져있다는 점이다. 이번 전수조사와 관련해 거창군에서는 자체 시행한 7곳의 개발사업과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송정택지지구 개발사업까지 전수조사를 한다고 한다. 그러나 거창구치소 부지 및 그 진입로 등 국책 사업에 대해서는 조사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구치소 사업이 계획되고 보상이 되기까지 3~4년의 시간이 있었으므로 그 과정의 토지 및 농지의 거래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무수히 많은 의혹과 소문이 제기된 거창구치소 관련 국책사업이 조사에서 빠졌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으며 조사에 대한 신뢰성마저 훼손될 여지가 충분하다. 이에 국책사업도 조사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만약 거창군이 조사권한이 없다면 국책사업을 추진한 정부기관에 전수조사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전수조사 기간의 문제이다. 지금부터 10년전까지의 전수조사는 많은 투기 연루 의혹자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시사단에서는 거창군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기간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의 발표시기 5년전부터 전수조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렇게 해야 제대로 된 조사가 될 수 있으며 조사의 신뢰성도 높아질 수 있다.

셋째, 전현직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현직 공무원으로 한정하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이해 하겠는가? 만약 공무원의 신분으로 투기를 하고 퇴직을 했다면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 현직 공무원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개발예정지의 토지(농지) 거래의 움직임을 낱알이 들여다보고 거기에 누가 연관이 되어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

다시한번 거창군의 투기관련 전수조사에 환영의 입장을 전달하며 시사단에서 제기하는 위의 의혹들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거창군은 시사단의 요구를 반드시 수용해서 진정성 있는 조사 계획을 세워 추진해 주길 강력히 요구한다.

2021년 3월 22일

거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명서

거창군은 공직자부동산 투기의혹 전수조사 제대로 재시행하라
연대회의는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의뢰 하겠다

거창군은 지난 5월 25일 거창군 공직자부동산 투기의혹 전수조사(이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거창구치소 건립사업과 송정지구택지사업 등 11곳에 대해 3월 22일부터 5월 18일까지 56일간 공무원과 그 가족 등 총 1,97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 부동산을 거래한 사람은 9명으로서 공무원 5명, 그 가족 4명이었다고 하며 문제가 있는 부동산 거래는 없다고 발

표했다.

거창군은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이번 전수조사 진행과정과 결과 모두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다. 이에 거창시민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전수조사의 신뢰성과 부실우려를 담보하기 위해 거창군에 전수조사 진행과정 공개를 요청하고 전수조사단 구성을 시민단체 관계자와 법조인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한바 있다. 그러나 거창군이 공개한 것은 공익사업 내 부동산거래자 현황과 위치뿐이고 조사단도 공무원으로만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이에 연대회의는 전수조사의 한계와 부실로 인해 그 결과가 뻔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한편 성산마을이주단지 공무원 2명의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해 거창군은 법조타운 업무 최초 수행 전에 매입한 사항이며 관련 업무에 종사한 이력이 없어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심 정황은 없다고 했다. 이 건은 이미 거창군농민회, 거창여성농민회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거창군이 발표한 공익사업 조사대상 현황을 보더라도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존재한다. 이 건의 사업기간은 2012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이다. 그런데 해당 공무원이 땅을 구입한 년도는 2010년이다. 그는 그 당시 양동인 군수의 비서로 근무했고 2010년 이전에 법조타운에 대한 정보가 있었다고 널리 알려져 있다. 부동산 투기는 사업시행 전에 미리 사두고 사업시행 지역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상식이다. 이렇게 명확한 의혹을 파헤쳐서 군민들의 의혹을 풀어 주기를 기대하였으나 의혹해소는 고사하고 그저 덮고 피하기만 하고 있어 거창군은 주민으로부터 엄청난 비난과 불신을 받고 있다.

부패한 공무원이 많으면 나라는 병들고 국민은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 지금 미안마를 보라. 국민이야 어떻게 살든지 어떻게 되든지 자기만 잘살면 된다는 짐승보다 못한 의식을 가진 군부독재 집단이 자기 국민을 무참히 죽이고 자기의 부와 권력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이것이 모두 공익을 위해야 할 사람이 제 몫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공무원 한 사람의 손에 수많은 국민의 행복과 불행이 좌우된다. 그러므로 부패한 공무원은 일벌백계하여 공직자 기강을 바로 세워서 대부분의 바르고 정의로운 공무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거창군이 진정으로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연대회의는 이번 발표결과를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식 졸속 조사라고 판단하고 거창군의 제조사와 경찰에 수사의뢰를 진행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거창군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다시 실시함에 있어서 시민 단체 관계자와 법조인을 합류시켜라.
2. 거창시민단체연대회의가 의심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다.
3. 거창시민단체연대회의는 공무원 투기의혹을 경찰에 수사의뢰 하겠다.

2021년 6월 1일

거창시민단체연대회의

질의서

4. 거창군의 경남·울산 JC 회원대회 행사비 지원 편성에 대한 공개 질의서

질의 1. 거창군 인구교육과는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에 경남·울산지구 JC 회원들 간의 정보교류, 친목도모를 위한 회원대회에 예산을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특정 단체에 한정해서 거액의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거창군민은 의혹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행사비 지원 신청부터 보조금 심의 과정과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까지 과정을 상세하게 밝혀 의혹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함께하는거창』>은 예산을 편성한 거창군 인구교육과에 JC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의 자료 열람과 편성사유를 문의하였으나 모두 거절되었

습니다. JC 측에서 자료를 공개하지 말라는 이유였습니다. 추경에서 3,000만원이 심의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민에게 편성과정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 못 할 검은 거래의 의혹이 있다는 소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간의 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3. 이번 JC의 회원대회 행사비 지원이 거창군의 인구교육과 청년정책과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지역의 특정 단체인 JC 회원대회가 인구교육과의 6대 정책과제 중 하나인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에 해당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정 단체의 하루 단합대회가 거창청년 전체의 삶의 질 향상에 무슨 도움이 되며, 제대로 효율성은 살펴보았는지, 외압은 없었는지, 군민의 공복으로서 양심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질의 4. 거창군에는 JC 외에도 많은 사회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들은 나름대로 전국 규모의 조직을 가지고 거창을 위해 봉사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창군은 계속해서 특정 단체에만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앞으로는 거창군의 모든 단체를 대상으로 회원대회 행사비를 지원할 것입니까? 사회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조건이 있다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공개하여 주시고, 회원단합대회 비용을 신청하는 모든 단체에게 평등하고 정당하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04. 26

『함께하는거창』

답변서

수신 『함께하는거창』

(경유)

제목 거창청년회의소 ‘경남·울산 JC 회원대회’ 지원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서 송부

질의 1. 거창군 인구교육과는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에 경남·울산지구 JC 회원들 간의 정보교류, 친목도모를 위한 회원대회에 예산을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특정 단체에 한정해서 거액의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거창군민은 의혹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행사비 지원 신청부터 보조금 심의 과정과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까지 과정을 상세하게 밝혀 의혹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경남·울산 JC회원대회 예산편성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0. 12. 18. : 거창청년회의소 임원진 군수 면담시 2021년 『경남·울산지구 JC 회원대회 유치의사 표명 및 예산 지원 요청
- 2021. 2월 : 경남·울산 지구 JC 정기총회시 거창유치 확정
- ※ 2020년(함안), 2019년(김해), 2018년(울산 중구)
- 2021. 2월 ~ 3월 :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 2021. 3. 10. : 제50차 경남·울산 지구대회 사업계획서 접수
- 2021. 3. 16. : 제3회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자료 제출(인구교육과 → 기획예산담당관)
- 2021. 3. 18. : 행사지원 계획 군수 방침 결재(제2회 추가경정 예산)
- 2021. 3. 26. : 제3회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자료 결과 통보(원안의 결)(기획예산담당관 → 인구교육과)
- 2021. 4. 7. : 2회 추가경정 예산안 군의회 예비심사(총무위원회)
- 2021. 4. 8.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 및 계수조정 - 당초요구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2천만원 예산감액
- 2021. 4. 12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본의회 통과

질의 2. <『함께하는거창』>은 예산을 편성한 거창군 인구교육과에 JC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의 자료 열람과 편성사유를 문의하였으나 모두 거절되었습니다. JC 측에서 자료를 공개하지 말라는 이유였습니다. 추경에서 3,000만원이 심의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민에게 편성과정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 못 할 검은 거래의 의혹이 있다는 소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간의 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JC측의 사업계획서는 행정에서 예산편성과 사업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요구한 기본적인 자료인 동시에 행사시기가 10월경으로 상당한 시일이 남아 있어 계획이 변경될 수 있는 확정되지 않는 자료입니다. 또한 사업주체인 JC 측이 작성한 자료이니만큼 JC측의 공개여부 동의를 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다시한번 JC측에 협조 공문 발송 등으로 자료공개가 될 수 있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개여부 등 사항은 JC사무국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창청년회의소 연락처 : 944-2763

질의 3. 이번 JC의 회원대회 행사비 지원이 거창군의 인구교육과 청년정책과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지역의 특정 단체인 JC 회원대회가 인구교육과의 6대 정책과제 중 하나인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에 해당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정 단체의 하루 단합대회가 거창청년 전체의 삶의 질 향상에 무슨 도움이 되며, 제대로 효율성은 살펴보았는지, 외압은 없었는지, 군민의 공복으로서 양심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 거창청년회의소(JC) 민간단체는 그동안 행정과 주민자치담당에서 관리해 왔으나 2021.1.4.일자 거창군 조직개편에 의거 인구교육과내 청년정책담당이 신설됨에 따라 담당내 세부분장사무중 ‘청년관련 지원 업무 총괄’규정과 ‘창군 청년발전 기본조례 제20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규정에 의거 청년단체로 판단하여 업무를 이관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경남·울산 JC 회원대회 지원은 거창청년회의소 주관으로 지난 1986년 제17차 대회와 2014년 제44차 대회(2천만원 예산지원) 두차례 거창에서 개최한 사례, 전년도 대회에서 함안군이 5천만원을 지원한 사항, 향노화 힐링랜드, 출렁다리, 창포원 등 우리군 주요 관광자원 홍보, 지역 농산물 판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경예산 편성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그 외 어떤 외압과 사심은 없었음을 밝힙니다.

질의 4. 거창군에는 JC 외에도 많은 사회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들은 나름대로 전국 규모의 조직을 가지고 거창을 위해 봉사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창군은 계속해서 특정 단체에만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앞으로는 거창군의 모든 단체를 대상으로 회원대회 행사비를 지원할 것입니까? 사회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조건이 있다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공개하여 주시고, 회원단합대회 비용을 신청하는 모든 단체에게 평등하고 정당하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각 민간 및 사회단체에 대한 군 예산지원은 담당부서별 개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특정단체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단체의 목적, 성격, 조건,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해당 담당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명서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교 이사장의 비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

『함께하는거창』은 계속해서 한국승강기대학교의 비리와 특혜에 대해 지적해왔고, 교육부의 실태조사 결과 한국승강기대학교가 학교 비리의 온상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리는 근절되지 않고, 적반하장으로 비리를 저지른 당사자들이 노조 지부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온갖 추태를 일삼고 있다.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은 2015년, 특수관계인(김천영 총장 본인과 두 명의 매형)이 소유한, 감정평가금액 16억 원의 부동산을 20억 원으로 매수하는 매수(안)을 의결하여, 15억 원을 우선 지급했으나, 2016년 10월 잔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계약해지 및 계약금 환불 요청을 했지만 1억 원만 회수하고 14억 원을 회수하지 못해 학교법인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있고, 총장이 실제 소유하고 있다고 알려진 건설업체 (주)경보가 전문면허 없이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만 가지고 여러 건의 수의계약 체결을 하는 등 온갖 불법을 자행한 사실이 있다.

2019년 김천영 한국승강기대학교 이사장은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학교법인에 11억4천2십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자신들의 명의로 두어 코리아신타 주식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타계약을 체결하여 코리아신타 주식회사로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방법으로 이중 매매를 하여 학교법인은 11억3천만 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고, 법인은 대학에 지원해야 할 법정 전입금도 3년간 미납하여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충당했고 그 피해는 10년간 교직원의 임금동결, 학생 복지 및 교육 투자 재원 감소로 이어 졌다.

이에 『함께하는거창』은 거창군민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엄중하게 요구한

다!

하나. 검찰은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교와 이사장의 비리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

하나. 교육부는 법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김천영 이사장의 이사직 선임을 취소하라!

하나. 거창군과 의회는 한국승강기대학에 군민혈세 130억원 투입과 매년 수억 원씩 지원되고 있음을 자각하고 학교 정상화를 위해 비리 당사자들의 퇴진을 강력하게 요구하라!

하나. 비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사장과 관계자들은 즉각 사퇴하라!

2021년 10월 15일

의견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의견서

군수님께

거창군복합교육센터 관련하여 거창의 많은 시민사회단체는 우려가 깊습니다. 그 동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줄여 '시사연')는 몇 번의 자체 토론회를 거쳤고, 군청 담당자와의 설명회를 거쳐 종합적인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시사연은 현재 계획중인 거창군복합교육센터 건립안에 대해 「전면적 재검토」를 요구하며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예산의 효율적 운영으로 낭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예산은 군민 모두의 것입니다. 건물을 짓기 전에 법원 지원, 검찰지청 자리에 있는 건물에 대한 재활용 계획을 검토해야 합니다.

거창에는 읍에 많은 복지과 문화 공간이 있습니다. 이들 공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과 지역을 살리는 방향으로 로드맵을 짜야합니다.

2. 강남과 강북, 읍과 면의 고른 발전을 위해 큰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많은 군민이 바라는 것, 가장 불편한 것, 인구 증가의 획기적인 정책, 읍과 면의 균형 발전, 강남과 강북의 균형 발전 등 모든 면을 고려한 종합적인 설계가 먼저입니다.

3. 설계부터 우리 손으로- 민관 합동 추진단이 필요합니다.

외부의 용역회사에 맡기는 것이 우선은 아닙니다. 군민이 주인으로서 참여하고 같이 설계를 해야 올바른 방향이 설 것입니다. 그런 다음 군민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 분야의 전문가를 투입하면 됩니다. 군민이 참여하고 결정해야 결과도 높게 평가될 것입니다.

4. 협력적회의체(거버넌스)를 구성해야합니다.

군청, 교육청, 시민이 거창의 문제를 상시적으로 논의하고 해결하는 거버넌스를 만들어야합니다. 비용 투입 대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따로 국밥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어떻게 하면 거창군민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인가에 군민 전체가 매달려야 합니다. 거창에서 오래 머물고 싶은 정책을 위해서 협의체가 필요합니다.

5. 꿈을 만드는 100인 토론회를 개최합시다.

다양한 계층이 만나서 진정 어린 토론회를 통해 거창 교육의 모습과 거창발전의 모습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한 번의 공청회로 끝날 일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열어두고 거창의 미래를 만들어갑시다.

군수님께서도 훨씬 더 좋은 거창을 만들고자 고민하실겁니다.

정녕 살기좋은 거창을 바란다면 거창군복합교육센터 건립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거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답변서

수신 : 거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귀하

(경유)

제목 거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의견서에 대한 검토결과 통보

□ 의견서 주요내용

- 가. 예산의 효율적 운영으로 낭비를 최소화해야 함
- 나. 강남과 강북, 읍과 면의 고른 발전을 위해 큰 그림을 그리자
- 다. 설계부터 우리 손으로 민관 합동 추진단 필요
- 라. 협력적 회의체(거버넌스)를 구성해야 함
- 마. 꿈을 만드는 100인 토론회 개최

□ 의견서에 대한 답변(안)

- 강남과 강북, 읍과 면의 고른 발전을 위해 큰 그림을 그리자 - 강남과 강북은 주민이 불편해 하는 것, 인구 증가의 획기적인 정책, 읍과 면의 균형 발전, 강남 강북의 균형을 고려한 종합적 설계가 우선
 - ☞ 강남권은, 복합문화지구 주차장과 시외버스터미널 공영주차장 조성, 한들교를 신축하였고, 장기방치 건축물 행복주택으로의 전환사업과 의료복지타운 조성, 남부 우회도로 개설, 대평 우회도로 개설 및 회전 교차로 조성 등 강남권에 대한 거시적 안목으로 도시기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 강북권은 법조타운 조성, 거열산성 진입도로 개설, 죽전 도시재생사업, 공설시장 활성화 및 공설시장 주차장 조성 등으로 제2의 중흥기를 기대하고 있음.
 - ☞ 면단위는,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3개면) 및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3개면), 취약지역 개조(2개소) 사업을 추진 중이며, 면단위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주민역량강화와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부터 농촌협약사업을 통해 보건·의료, 교육, 문화 등 기초생활서비스 구축을 통한 농촌정주여건 개선을 실시할 계획임. 특히, 면단위 작은학교 살리기 추진의 일환으로 LH 임대주택 건립사업(2개소)을 추진하는 등 면과의 균형발전을 꾀하고 있음.
- 설계부터 우리 손으로 민관 합동 추진단 필요
 - 외부의 용역사에게 맡기지 말고, 주민이 참여하여 설계한 후, 필요시 전문가를 투입하는 것이 좋음
 - ☞ 또한, 통상 군 사업은 시기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군에서 기본구상 후 주민의견

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특히, 본 사업은 현) 지원·지청이 법조타운으로 이전 후에 구상하기에는 시기를 일실 할 수 있으므로, 미래를 예측하여 당겨서 기본구상을 하게 되었고, 현)지원 · 지청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2차례 2,169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하고, 24차례 326명의 소규모 주민토론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12월 중 주민 대토론회를 통해서 추가로 주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임. 추후, 수정 용역시 주민의 의견이 잘 반영되도록 하겠음.

- 협력적회의체(거버넌스)를 구성해야 함
 - “군청+교육청+시민” 이 상시적으로 논의하고 해결할 거버넌스 (협의체)를 만들어야 비용대비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음. ☞ 그리고, 준비 중인 거창군 교육발전협의체 및 실무추진단 등을 통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음.
- 예산의 효율적 운영으로 낭비를 최소화해야 함 - 먼저, 기존의 공공시설 공간의 활용도를 높일 방법을 찾아야 함 - 예산의 효율적 운영으로 삶의 질 향상 할 로드맵 짜야
- ☞ 더불어, 수정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한 실태분석과 함께 활용도 제고 방안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음.

- 꿈을 만드는 100인 토론회 개최
 - 공청회가 아니라,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계층이 만나 거창 교육의 모습과 발전방향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함.
- ☞ 끝으로, 12월 중 일방적인 군의 사업결정 및 설명회가 아닌, 거창군 교육전반을 진단하고 미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퍼실리테이터를 활용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거창군의 교육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되도록 자리를 마련할 계획임.

2020년 11월 30일

입장문

거창군은 단체 행사비 지원에 대해 좀 더 신중을 기하고 형평성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

거창군 인구교육과가 2021년 추가경정 예산안에 거창군의 특정 단체 행사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한 사실과 편성과정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거창의 시민단체는 불만을 토로하였다. 또 거창군은 추경에서 3,000만원이 심의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민에게 그 단체의 계획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에 ‘『함께하는거창』’은 거창군에 공개 질의서를 보내 거창군의 답변을 받았다.

거창군은 답변서를 통해 “각 민간 및 사회단체에 대한 군 예산지원은 담당부서별 개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으며”라고 답변하면서도 이번 모 단체에 대한 5천만 원 편성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법령이나 조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그저 ‘지금껏 그래 왔으니까?’ ‘타 군에서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라는 책임 전가하기만 거듭하는 답변을 받았다.

또 ‘『함께하는거창』’은 공개 질의서를 통해, 해당 단체의 계획서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를 물었다. 이에 대해 거창군은 ‘해당 단체로부터 공개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거창시민단체는 이것은 매우 잘못된 관행이라고 판단한다. 그 이유는 군민의 세금이 행사비로 지급되는 것이 확정된 사안은, 해당 단체의 동의 유무와 관계없이 군민에게 계획안을 공개하여, 거창군이 군민의 세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거창시민단체는 거창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단체들의 지원을 중단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거창시민단체는 거창군이 거창군의 단체에 좀 더 많은 지원을 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다만 지원에는 원칙과 공정성이 있어야 한다.

이번 특정 단체의 단합대회비 편성과 같은 경우에도 그렇다. 그 단체의 단합대회가 거창의 인구정책과 청년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군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고 그저 ‘전에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는 다른 군에서도 그렇게 해서’라는 답만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공무를 시행하는 공무원이 아니다.

앞으로 특정 단체의 행사비를 편성할 때는 반드시 해당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정당하게 집행하고 공평하고 적용해야 하며 그 단체의 행사가 거창군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검토하여 집행하여야만 군민들은 수긍할 할 것이며 거창군은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함께하는거창』, 전교조, 거창여성회, 민족미술인협회거창지부, 희봉위생노조

회원 소모임 활동

푸 른 숲

우리 지역의 가까운 산과 전국의 명산을 찾아 자연과 호흡하며,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회원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줍니다.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다.
(산행대장: 백철우)

■ 3월 정기산행

- 1.일시 : 2021년 3월 14일
- 2.참가자 : 김영수, 윤 철, 백철우, 방창희(4명)
- 3.산행코스 : 오도산휴양림->말복재->미녀봉->오도산휴양림
- 4.산행시간 : 3시간

■ 6월 정기산행

- 1.일시 : 2021년 6월 20일
- 2.참가자 : 김영수, 이창희, 윤철, 방창희(4명)
- 3.산행코스 : 흰담이산->양각산->시코봉->수도산 방향으로 하산
- 4.산행시간 : 5시간, 약 12km

■ 12월 정기산행

- 1.일시 : 2021년 11월 20일
- 2.참가자 : 김영수, 이창희, 신승렬, 방창희, 전수미, 조영준, 정은주(7명)
- 3.산행코스 : 승강기대-->망실봉-->승강기대
- 4.산행시간 : 2시간 30분

작은권리찾기모임

일상생활 곳곳에서 부딪치는 작은 권익 문제를 찾아내고, 지역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낡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현실을 개선하여 우리 스스로 권리를 찾아가고자 한다. 건강한 사회참여의 기쁨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가슴 뿌듯함을 함께 나눌 수 있다. (대표: 변범식, 총무: 최은주)

■ 2021년 코로나 관계로 모임 없음.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2022년 사업 계획

2022년 『함께하는계장』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살펴봅니다.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들은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채워나가겠다. 『함께하는계장』이 건강한 지역 사회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사무국

- “군의원 업무평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함께하는계장』 회원들과 함께 주관적 평가도 병행해 나가겠다.
- 기본업무에 충실하며, 『함께하는계장』이 해야 할 일을 찾아 최선을 다하겠다.
- “군정감시 활동, 지역 정책 제안, 조직의 운영, 지역 연대”를 활성화하겠다.

■ 홍 보

- 소식지를 정기적으로 발행하겠다. 내용을 풍부하고 다채롭게 실어 읽고 싶은 소식지, 회원이 기다리는 소식지로 만들겠다.
- 『함께하는계장』의 활동 내용을 주민들에게도 잘 전달하도록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SNS, 언론 등 다양한 매체를 잘 활용하겠다. 특히 『함께하는계장』 유튜브 채널을 활성화 하겠다.

■ 회원 활동

- 회원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 등산모임 푸른숲과 작은권리찾기모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 회원들의 요구, 취향에 따라 새로운 소모임 혹은 함께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고민하겠다.

■ 후원이사회 활성화

- 재정 확보를 위해 후원이사회를 활성화하겠다.

■ 부속 연구소

- 동영상은 제작하여 『함께하는거창』 유튜브 채널에 등록하겠다.
- 사업방향 : 거창지역 현황분석, 정책대안, 거창의 인물, 거창의 역사, 거창의 지리, 거창의 문화, 거창인의 작품 등, 기타 거창에 관련된 주제.
- ※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함께하는거창』 Positive 정책

-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에 좀 더 중점을 두겠다.
- 거창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방안 모색하겠다.
- 투명한 기부문화 플랫폼을 구상하겠다.

2022년 예산(안)

1. 일반회계(사무국)

(단위:원)

수 입			지 출		
구 분	계정과목	금 액	구 분	계정과목	금 액
회비수입	회비수입	20,000,000	인 건 비	활 동 비	14,400,000
	후원금(사)	0		상 여 금	400,000
				퇴직적립금	1,200,000
				복리후생비	0
기타수입	이자수익	5,000	사무유지비	건물관리비	4,200,000
	차 입 금	0		기기구입비	1,000,000
	잡 수 입	1,200,000		사무용품비	300,000
	전년도 이월금	10,091,030		세금과공과금	5,000
				소모품비	100,000
				수 선 비	100,000
				수도광열비	1,149,554
				통 신 비	550,000
			사 업 비	도서인쇄비	2,000,000
				발 송 비	500,000
				분 담 금	1,000,000
				사 업 비	2,043,855
				회원활동비	1,000,000
				회 의 비	200,000
				출장연수비	0
				잡 비	300,000
			사업외비용	차입금 상환	0
				예 비 비	847,621
수입합계		31,296,030	지출합계		31,296,030

『함께하는거창』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모임은 『함께하는거창』이라 한다.

제2조(목적) 『함께하는거창』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동력으로 하여, 생활세계에서의 주권확보와 참여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실천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나아가 참여민주주의 사회의 실현과 자치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 『함께하는거창』의 사무소는 거창에 둔다.

제2장 사업

제4조(사업) 『함께하는거창』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운동-사업을 전개한다.

1. 주민자치 운동 : 참여민주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에의 주민참여 활동
2. 자치공동체 회복운동 : 자치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활동
3. 공론영역 형성운동 : 생활세계의 과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합리적 공론을 형성하는 활동
4. 자치언론 개혁운동 : 자치공동체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 언론의 건강성 회복을 위한 활동
5. 민주시민 교육운동 : 주민들의 주권의식과 참여의식 재고를 위한 회원 및 주민교육 활동
6. 기타 이 모임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3장 회원

제5조(회원가입) 『함께하는거창』의 목적에 뜻을 함께하는 사람으로,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한 사람은 회원이 된다.

제6조(삭제, 2006년 1월 17일)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함께하는거창』이 주관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2. 『함께하는거창』의 운영 및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3. 『함께하는거창』 내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

제8조(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닌다.

1. 『함께하는거창』의 정관을 준수할 의무
2. 『함께하는거창』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의무
3.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9조(상벌) 『함께하는거창』의 발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다음과 같은 포상과 징계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회원총회에 보고한다.

- ①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회의 포상 대상이 된다.
 1. 회원으로서 본 회의 각종 사업과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그 공로가 인정되는 자.
 2. 비회원으로서 참여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 ②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견책 또는 경고를 통해 반성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1. 회원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본 회의 명예를 떨어뜨렸다고 인정되는 자.
 2. 이 모임의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해 본 회에 피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자.
 3. 위항에 해당하는 임원의 경우 그 직의 수행을 중지 또는 해임할 수 있다.

제4장 기 구

제1절 회원총회

제10조(지위) 회원총회는 『함께하는거창』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11조(소집) 정기 회원총회는 연1회,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임시 회원총회는 재적 회원 1/5 이상의 요구나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권한 및 의결) 회원총회는 『함께하는거창』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토의, 결정하며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홈페이지 또는 **SNS**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하고, 의결할 내용을 반드시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모든 회원에게 서면 및 **문자**로 통지하여야 한다. 회원총회에서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기 회원총회에서 다음의 사항들을 결정한다.

1. 정관의 개정
2. 임원개선(공동대표, 감사)
3. 예·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4. 기타 중요한 안건

제13조 (출석) 회원은 회원총회에 직접 출석하지 못할 경우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직접출석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단, 임원선출은 제외한다.

제14조 (임원개선의 절차) 임원의 선출방법은 회원총회에서 선출하며 사무국장은 공동대표의 합의로 임명하고 회원총회에서 승인 받는다.

제2절 운영위원회

제15조(지위) 운영위원회는 『함께하는거창』의 일상적 운영 및 사업과 활동에 관련한 사항들을 의결·집행하는 기구이며, 모든 회의는 회원들에게 공개한다.

제16조(구성) 운영위원회와 확대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운영위원회는 공동대표, 각 회원활동기구의 대표와 사무국장 및 후원이사회 회장으로 구성하며, 필요 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2. 확대운영위원회는 제16조의 1항의 구성원과 후원이사, 고문, 자문위원으로 구성

할 수 있다.

3. 운영위원장은 상임공동대표가 겸직하고, 부위원장은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17조(소집) 운영위원회는 매 1개월마다 운영위원장이 정기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확대운영위원회는 제16조 2항에 의거 구성할 수 있다. 단, 운영위원 1/5이상의 요구 또는 운영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또한 운영위원회의 아래에는 상임공동대표를 회장으로 하는 상시 회의기구인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상임위원을 선임하여 운용할 수 있다. 운용 규정과 방식은 정기운영위원회의 재량으로 한다.

제18조(의결)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권한) 운영위원회 및 확대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각종 사업 및 활동의 입안과 집행
2. 회원활동 기구의 승인 또는 승인취소
3. 운영위원 위촉, 후원이사, 고문, 자문위원의 추대
4.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내규의 제정과 개정
5. 사무국의 유지, 운영에 관한 사항
6.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유권해석
7. 기타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무의 처리

제20조(사무국) 『함께하는거창』의 활동을 총괄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산하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과 약간 명의 간사, 정책, 기획, 홍보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둘 수 있다.

제3절 공동대표, 고문, 자문위원회, 감사, 후원이사회

제21조(공동대표 및 상임공동대표)

1. 공동대표는 『함께하는거창』을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 공동대표는 3인 이내 두고,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2. 공동대표 호선에 의해서 1인의 상임공동대표를 선출한다.

제22조(고문) 『함께하는거창』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문을 하고, 지도를 받

기 위하여 지역의 신망 있는 인사 약간 명을 고문으로 추대한다.

제23조(자문위원회) 『함께하는거창』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문에 응할 각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추대한다.

제24조(감사) 『함께하는거창』의 사업 및 재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둔다.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후원이사회) 『함께하는거창』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하여 후원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고, 후원이사 호선에 의하여 후원이사회 회장을 선출한다.

제4절 회원활동기구

제26조(회원활동기구) 회원은 본 회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회원활동 모임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자발적 회원활동 모임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음으로 해서, 공식 회원활동기구로 등록되며,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① 의무

1. 활동상황에 대하여 회원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2. 활동결과에 대한 대외적 발표 및 대응은 반드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② 권리

1. 활동에 필요한 재정적, 인적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2. 활동에 필요한 회원지도력을 발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3. 필요한 대외적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절 연구소

제27조(명칭 및 소속) 본 연구소는 '『함께하는거창』 부속연구소'(약칭 함께하는 연구소)라 칭하고 『함께하는거창』 산하에 둔다.

제28조(목적) 연구소는 거창과 지역의 전반에 걸친 연구를 진작하고 그 결실을 결집하여 지역의 발전은 물론 군정, 행정 등 일선 현장에서의 활동 발전과 내실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되, 본 정관의 '제2조'와 '제4조'에 부합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제29조(주요사업) 연구소는 '제27조' 와 '제28조'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거창 지역에 관련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 분야에 대한 연구
2. 거창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및 그와 관련된 전문인력 또는 단체의 연대활동
3. 학술세미나, 발표회, 강연회 등의 개최
4. 관련 연구문헌 및 자료 수집
5. 학술지 및 연구자료집 발간
6. 유관 연구소 및 학술단체들과의 공동작업
7. 그 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5장 재정

제30조(회계연도) 『함께하는거창』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1조(예산 및 결산) 1.운영위원장은 다음해 예산안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2.당해 연도 결산(안)은 회원총회 개최 전 예산회계 준칙에 따라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회원총회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3.정기총회에서 승인받은 예.결산서 및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 및 『함께하는거창』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32조(수입)

1. 『함께하는거창』의 수입은 회원회비, 후원금, 특별기금, 기타수익으로 한다.
2. 특별기금은 후원이사회에서 관리하며 그 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할 때 후원 이사회의 결의를 따른다.
3. 특별기금의 이자는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33조(회비) 회원회비는 내규로 정한다.

제6장 보 칙

제34조(정당 활동의 제한) 공동대표와 사무국장 및 운영위원은 선출직공직에 입후보하는 경우, 정당의 주요당직을 맡을 경우 사임하여야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라도 자동으로 그 직을 상실한다.

제35조(준용규정)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과 내규에 따른다. 내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제36조(해산 및 잔여재산의 귀속) 『함께하는거창』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내용을 지역신문, 인터넷 등에 공고하며, 잔여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함께하는거창』의 설립 취지와 유사한 비영리단체에 귀속한다.(2009. 1. 20 개정)

부 칙

이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01년 2월 23일 정기총회에서 1차 개정,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04년 7월 16일 임시총회에서 2차 개정(전면개정),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05년 1월 21일 정기총회에서 3차 개정,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06년 1월 17일 정기총회에서 4차 개정,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09년 1월 20일 정기총회에서 5차 개정,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12년 1월 31일 정기총회에서 6차 개정,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13년 1월 29일 정기총회에서 7차 개정,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13년 1월 28일 정기총회에서 8차 개정,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17년 2월 2일 정기총회에서 9차 개정,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19년 1월 24일 정기총회에서 10차 개정,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